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투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홀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378호

Tuesday, September 9 2025 A

한국정부·기업 불법노동 사태 책임져야

불법노동 단속에도
계도 작업 소홀히 해

지난 주 조지아 주의 현대차-LG에너지 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비자 문제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10일 한국 정부가 보낸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과연 이번 사태의 책임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거액을 투자해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와중에 발생한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등, 책임 회피성 발언만 계속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이민세 관단속국(ICE)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밝힌 뒤 7일에도 "여전히 한국과의 관계는 좋긴 하지만, 배터리, 컴퓨터, 조선처럼 미국에 없는 기술을 전해 주려 온다면 그 대가로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훈련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한국 언론은 이번 사태가 공장 내



중무장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단속 현장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

[로이터]

부자의 제보로 지역 공화당 정치인이 ICE에 신고하면서 발생했다고 전하며 책임 소재에 물을 타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이들이 B비자나 ESTA를 이용한 장기 근로를 했다는 점에서 불법 근로가 명백하다.

한국정부는 올들어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과 거액 투자 등에 정책적 역할

을 쏟아붓고 있기에, 이같은 불법 노동을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주미한국 대사관과 영사관 등은 최근 들어 미국의 불법이민 단속 실태를 모를 리가 없으나 한국 기업에 대한 계도 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은 미국 기업 현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없이 MASGA(미국 조선업

을 다시 위대하게) 등으로 들뜬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나, 상호관세 세부 협상 조차 마무리하지 못해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기업 근로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블라인드 등에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하청 근로자의 불법 파견 행태를 목인하고 오히려 부추겼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원청회사인 현대차와 LG엔솔이 미리 단속 정보를 입수하고 원청 직원들을 철수시켰는데 하청업체 직원들만 통보를 못 받고 출근했다가 체포됐다는 게시글이 등장해 원청 대기업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한인들은 한국 대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면 고용 기대감이 높아지지만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직원을 파견하기 때문에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애초에 조지아 지역 주민들의 고용없이 한국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데려온다는 불만에서 시작했다.

김욱제 기자

‘한국 비자쿼터’ 가능성 높지 않아

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사태를 계기로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 제도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호주·싱가포르·칠레 등은 국가별 특별비자가 있지만 한국은 없다.

최대 대미 투자 국가(2023년 215억 달러)에 오른 만큼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늘었는데도 양국 정부가 비자 문제를 방치해 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미국에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전문직 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는 발급 요건이 까다롭고 심사에도 수개월이 걸린다. 이 때문에 전문인력이 수시로 필요한 공장 건설이나 초기 생산 단계에서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한 우회 출장 관행이 생겼다. 김윤미 기자

▶ 2면 '한국 비자 쿼터'로 이어집니다

중국 29일부터 무비자 한국 입국

범죄 증가·불법체류 등 우려 커져

한국 정부가 이달 22일부터 무사증(무비자)으로 방문할 중국 단체관광객의 명단 접수를 시작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 허용 관련 세부 지침이 담긴 관계 부처 합동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제주도에서는 이미 중국인 관광객의 '민폐' 행위와 불법 체류 문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부터 무비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무 장관이 고시하는 23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민은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다.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도한 외국인 10명 중 7명은 중국인일 정도로 중국인 비중이 높다.

하지만 최근 관광버스 내 흡연이나 길거리 용변 등 무질서한 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 체류 문제도 크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제주

도 내 누적 불법 체류자는 1만1191명에 달했는데, 이 중 중국인이 1만여명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범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동료를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중국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올해 1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역시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에는 동포를 집단 폭행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 2면 '중국 무비자'로 이어집니다

페어팩스 트랜스젠더 정책 흔들

‘연방교육부 보조금 동결’ 금지가 처분 신청 기각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페어팩스 및 알링턴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연방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동결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제시 알스턴 주니어 판사는 13페이지 짜리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연방정부 보조금 동결을 방지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법적 관할권이 없다"면서 "이 가처분 신청은 연방청구법원(Court of Federal Claims)에 하는 것

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청구법원은 계약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 문제와 연방정부와의 각종 계약관련 분쟁 등을 다루는 곳이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연방교육부가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을 '고위험' 기관으로 분류한 것은 매우 부당하기에 다음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방교육부는 북버지니아 지역 5개 교육청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연방정부 보조금 집행을 동결시켰다.

김욱제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플랜지 및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Total Business Solution

스마트보험에서는 비즈니스 보험과 직장 건강보험 관련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업종별 맞춤 비즈니스 보험
(GL, WC, E&O, Bond 등)

베네핏 컨설팅을 통한 최적의 직장 건강보험

전담 컨설턴트 배정 및 운영 지원

미주 진출 한국 지상사 전문 상담

당사 전용 글로벌 직장 건강보험
(United Healthcare, Aetna)

* 한국내 유명 병원에서도 사용가능 (삼성병원, 현대 아산병원 등)



Smart Choice for Smart People

smartinfo@solomonus.com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703-639-0882

MD 실종 여성 살해범 불법체류자

4월 음주운전 체포됐으나 ICE 인계 조치 없이 석방돼

최근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실종된 19세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된 가운데, 범인이 불법체류자로 드러났다. 당국에서는 유력한 용의자 휴고 헤르난데스-멘데즈(35세-사진)를 1급 살인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앤 아른델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경찰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실종된 다카라 톰슨(19세)이 보위에 위치한 용의자의 거주지 침실에서 살해된 후 메릴랜드 50번 다리 아래에 유기됐다고 밝혔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ICE)는 용의자가 과테말라 국적으로, 미국에 불법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세인트 찰스 고교를 졸업하고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한 비영리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지난 4월 음주운전 혐의로 국립공원관리국 경찰에게 적발돼 체포된 적도 있었으나 연방이민당국에 인계되지 않고 곧바로 석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아이사 브레이브보이스 프린스조지스 카운티 군수는 “당시 연방이민단속



국(ICE)의 구금요청 대상이 아니었기에, 연방법원 재판 중인 상태에서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다. 당국에서는 피해자와 용의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둘의 동선이 겹치는 지역의 감시카메라 영상에 의하면 히치하이킹에 의한 범죄로 의심되고 있다. 용의자가 피해자를 꼬드겨 차에 태워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용의자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주유소에 가지 않고 길 건너편 나이트클럽에서 옛 여자친구를 만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욱재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오늘(9일) VA 연방하원 제11지구 보궐선거

오늘(9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등에서 연방하원 제11지구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5월 제리 코벨리 의원이 별세하면서 치뤄지는 선거로, 공화당의 스튜어트 윌트슨 후보와 민주당의 제임스 워킨쇼우 후보가 맞붙었다. 당선자 윤곽은 10일 새벽 즈음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11지구는 페어팩스 카운티 대부분과 페어팩스 시티 전체, 라우던 카운티 및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일부를 포함한다. 유권자는 백인이 47%, 아시안이 22%, 히스패닉이 15%, 흑인이 9%를 차지한다.

페어팩스 일부 지역 도로변 보트 주차 금지 추진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일부 디스트릭이 도로변 보트 주차를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헌터필 디스트릭 정부는 레스톤 커뮤니티 파크 지역 등을 대상으로 RV 등 대형 차량과 보트 주차를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도 장기간 주차된 보트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운티 조례에 따르면 15일 이상 동일한 도로변에 주차된 보트 등은 견인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보트 등록 주소지로부터 500피트 이내에 주차된 경우에는 견인할 수 없다.

페어팩스 카운티 레크레이션센터 15% 할인 행사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원국 이 9월말까지 9개 레이크레이션 센터 멤버십을 구매할 경우 15%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멤버십에는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실내 경기장 등의 이용권 및 각종 프로그램 가입 혜택이 주어진다. 멤버십은 레크레이션 센터나 온라인(<https://www.fairfaxcounty.gov/parks/passes/>)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9월에 가입할 경우 개인 연회비 595달러, 2주 회비 29달러로 이용할 수 있다. 시니어와 청소년, 2인 및 4인 이상 등은 추가 할인 혜택이 있다.

태양의 서커스 VA 타이슨스 10월19일까지 공연

세계적인 서커스 공연단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가 오는 10월19일까지 버지니아 타이슨스 러너 타운 스퀘어(8025 Galleria Drive)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이 공연단은 지난 봄 조지 메이슨 대학 이글 밴크 아레나 공연에 이어 이번에는 타이슨스를 찾아 워싱턴 지역 팬들에게 인사할 예정이다. 태양의 서커스는 1984년 캐나다에서 설립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아크로바틱, 공중 곡예, 훌라, 저글링, 코미디, 라이브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독창적인 아트 서커스 공연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덜레스 공항여객기 청각장애인 폭행범 징역형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여객기 내에서 청각장애인 승객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에버레트 벨슨(44세)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피고는 지난 2월 피해자와 동일한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욱재 기자

워싱턴 단풍 10월말 11월초돼야 절정

애크웨더, 절정시기 발표
늦더위로 작년보다 늦어져

워싱턴 일원의 울가울은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돼야 단풍이 절절히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늦더위 여파로 단풍이 물들 시간적 여유가 사라지며 초록 상태의 잎이 떨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애크웨더(AccuWeather)의 2025년 단풍 예보에 따르면, 메릴랜드를 비롯

한 25개 주에서는 선명한 단풍이, 그리고 버지니아와 테네시 등 23개 주에서는 칙칙한 단풍이 예상된다. 워싱턴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에서는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단풍이 가장 아름답게 물들 것으로 애크웨더는 내다봤다. 애크웨더는 울가울 뉴잉글랜드와 중서부 지역 대부분에서는 선명한 단풍을 볼 수 있고, 애팔래치아 산맥과 스모키 산맥 일부는 칙칙한 단풍이 예

상되는 데, 펜실베이니아 남서부를 비롯해 메릴랜드 서부, 버지니아 동남부, 테네시, 앨라배마 주 등이 포함된다. 이 지역은 올 봄과 여름에 쏟아진 폭우와 홍수로 인해 벌레, 나무 질병 등이 번져 단풍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풍은 날씨와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데, 나뭇잎은 따뜻한 화창한 날씨뿐 아니라 춥지 않으면서 시원한 밤이 있어야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다. 김성한 기자

▶ 1면 ‘중국 무비자’에서 이어집니다

이 밖에도 타인 명의 영주증을 받아 위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다 검거된 사례도 있다. 일각에서는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불법 체류율이 증가하거나 허위 난민 신청이 발생할 경우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권 협정’을 기반으로 국경 검문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유럽연합(EU)은 무비자 혜택을 받은 국가에서 불법 체류나 범죄가 증가할 경우 해당 제도를 최소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면 ‘한국 비자 쿼터’에서 이어집니다

이에 미국에서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 비자(E-4)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인 전용 쿼터를 부여해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다. 연방의회에서도 2013년부터 회기마다 E-4 비자 신설을 담은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꾸준히 발의돼 왔다. 전문 교육·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특별 비자 쿼터를 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10년 넘은 기간 동안 미 정부와 의회의 무관심과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방치돼 왔다.

최근 미국이 외국인 비자를 오히려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이민 정세가 고조돼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찬성할지 의문이다. 싱가포르-칠레 특별비자의 경우에도 비자 신청 전후 90일 이내에 동일·유사 직종의 미국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해당 직무에 미국인을 우선적으로 모집해야 하는 등 ‘미국인 우선 채용 노력’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상호관세 부과로 FTA 자체가 무효화된 마당에 이를 근거로한 비자유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 날씨 (°F)

10일(수)	75-56	13일(토)	80-56
11일(목)	82-58	14일(일)	83-59
12일(금)	81-57	15일(월)	83-62

9월 9일(화) 77-57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센터빌 엔드유닛 타운홈
\$3,000
차고 1, 방 3, 화장실 3 1/2

RENT
헤이마켓 엔드유닛 타운홈
\$3,900
차고 2, 방 4, 화장실 3 1/2

박&우 합동법률 사무소 (Park & Woo, P.C.)가 새로이 출범하여 이에 고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박&우 합동법률 사무소

Park & Woo, P.C.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전)
-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 난민 정책위원 (전)
- 북미주 CBMC 총연합회 회장 (전)
- VA, MD, DC 변호사 자격

믿음과 전문성, 당신 곁에 있는 법률 파트너

박&우 합동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35년 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법률 문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 박&우와 함께 하세요!

민사, 상사, 형사, 회사법, 부동산, 상속, 유언, 이민 신청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박&우 합동법률 사무소
Park & Woo, P.C. (703) 941-7395

4308 Evergreen Lane, Suite G, Annandale, VA 22003 | E-mail: info@parkwoolaw.com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 주요 일간지 이민법률 상담 변호사
- 아태법률구조센터(APALRC) 법률 통역 (전)
- VA, NY 변호사 자격

북한·중국·러시아 '악의 동조' 추이 주목

트럼프, 인내심 한계 도달 고든 창, 주류매체에 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주장이 이목을 끈다.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진 고든 창 아시아문제 전문가는 7일 주류언론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했고, 키우이의 정부 청사를 타격한 점을 들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을 잃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그 시점이 꽤나 가깝게 있다고 전망해 귀추가 주목된다.

창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주 공개적으로 단결을 과시한 정상회담 이후 나온 것으로, 워싱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프레드 플라이츠 전 CIA 분석가는 중국, 북한, 러시아 모임이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허세에 가깝다고 전하며,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고든 창 전문가는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 강화가 결국 역효과를 낳고 유럽이 미국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유럽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이의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매우 오만하지만, 공산당 최고위층 내에서 내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꼬집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안정이라는 개념과 상충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핵 개발과 인권과 자유 등 양대 산맥 해결 과제가 놓여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실효성보다는 허세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 한계는 아마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뭔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창 전문가는 예고했다.

김성한 기자



맥클린한국학교가 가을학기 개강식 후 모두가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인 다음 세대를 훌륭한 리더로 양성'

VA 맥클린한국학교 2025 가을학기 개강

버지니아 맥클린한국학교(교장 이은애)가 한인주류사회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가을학기 개강식을 6일 개최했다. 2025학년도 가을학기는 16주 과정으로 이날부터 오는 12월20일까지이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고, 반 편성은 유치부(만 3-5세), 초등부(만 6-8세), 중급부(만 9-12세), 그리고 성인부로 구성된다.

맥클린한국학교 수업 내용은 한글, 미술, 전통놀이, 한국 역사를 필두로

특별활동과 언어문화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데, 학기 마지막 날 종강식에서는 재능발표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불어넣어 준다.

개강식에서 이은애 교장은 “우리 조국의 말을 배우고 글로 표현하며 역사와 문화를 익히는 일은 쉽지 않지만 매우 소중한 길”이라며 “학생들이 코리아 아메리칸이라는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이루기 바란다”고 전했다.

맥클린한국학교에 대한 문의는 전화(571-235-8997)로 하거나 웹사이트(www.mcleankoreanacademy.org)를 참조하면 된다.

김성한 기자

미주체전 5위 기록, 워싱턴DC 선수단 해단식

김덕만 선수단장 특별 공로장 받아

버지니아와 DC를 대표해 제23회 전미주한인체육대회(미주체전)에 출전한 워싱턴DC 선수단이 종합 5위를 달성하고 감동의 해단식을 뒤늦게 가졌다.

해단식은 7일 저녁 애난데일 한인타운 소재 '중미반점'에서 열렸으며 선수단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5위의 영예를 함께 축하했다.

지난 6월20일부터 22일까지 텍사스주 달러스 파머스브랜치 스타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워싱턴DC 선수단은 수영, 사격, 육상, 볼링 등 14개 종목에 출전해 금 20개, 은 17개, 동 22개로 총 59개의 메달과 1921점의 종합점수를 획득, 종합 5위의 성적을 거뒀다.

재미대한 워싱턴DC 체육회 김유진 회장은 “당초 목표는 3위권 진입이었으나, 막판 일부 종목에서 아쉬운 결과가 나와 5위를 차지했다”며 “순위를 떠나 체육회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열악한 환경과 악조건 속



재미대한 워싱턴DC 선수단이 해단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서 최선을 다해준 선수단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2년 전 선수부단장에 이어 이번엔 선수단장을 맡아 음양으로 크게 기여한 김덕만 단장은 “힘든 가운데서도 이번 대회에서 5위를 차지한 것은 워싱턴 한인사회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라며 “여러분의 땀과 눈물, 자신감 있는 승부가 워싱턴의 위상을 높였다”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김유진 회장은 김덕만 선수단장과 한광수 전 체육회장, 양광철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테니스, 태권도, 수영, 육상, 탁구, 사격, 배드민턴 등 산하단체에 각각 공로장과 표창장을 전달했다.

한편, 재미대한 워싱턴DC 체육회는 올해 맡아지는 김유진 회장 체제가 유지되고, 연말 총회에서 신임 회장 선출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한 기자

연방농무부 대규모 농업연구센터 폐쇄

최대 4600명 해고 혹은 전출

연방농무부 버지니아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벨츠빌에 위치한 농업연구센터(BARC) 등의 폐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기존 부지 활용 계획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BARC는 모두 6500 에이커 부지에 자리하며 지난 1905년 식품 안전과 건강 및 영양학 연구를 위해 설치됐다.

당국에서는 BARC 폐쇄를 비롯해 연방농무부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 4600여명의 공무원을 해고하거나 재배치할 계획이다.

워싱턴 지역에 위치한 연방농무부의 각종 기관은 유타, 콜로라도, 미주리, 노스 캐롤라이나 등으로 분산될 예정이다.

메릴랜드 지역의 연방 상하원의원들은 농무부 등에 이전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대체를 거스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BARC가 옮겨간 부지는 1987년 연방법에 따라 연방의회 승인 없이는 매각, 임대할 수 없다.

메릴랜드 주의의회도 1993년 법률을 통해 해당 부지는 모두 농업용으로 구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카운티 세수 증대 등의 목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으로 개발되는 것을 막고 있다.

메릴랜드 정치권은 최근 연방수사국(FBI) 본부의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그린벨트 이전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는 등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유체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 20년 이상 경력
- 주택 매매 - 렌트 전문
- 연 80 ~ 100여 채 주재원 헨트

로리 정
대표 에이전트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버지니아 열린 홈 헬스케어
VA OPEN HEALTH CARE

센터빌 한인타운 중심가 교통편리한 곳에
버지니아 열린 시니어 데이케어센터 오픈 예정

가정 돌봄 센터
가정에서 돌봄이 힘든 부모님을 위해
쾌적한 환경의 고급 돌봄센터 운영!!

버지니아 한인 최초로 Assist Living (양로호텔) 완공 임박!!

버지니아 열린 홈 헬스케어 / 대표 : 김 중 훈
Mobile (703)268-0107 / Office (703)280-0910 / Fax (571)487-8751
Email: admin@vaohc.com / General Inquiries: info@vaohc.com

한국 기업 불법 근무 관행 “터질게 터졌다”

ESTA 통한 출장, 오래된 문제 단속 여파로 기업들 전수조사 비자 발급 어렵게 한 것도 원인



지난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소재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연방 당국이 이민 단속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ATF 애틀랜타 지부 엑스 캡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과 관련해 현지 한인 사회와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조지아주 한인 배터리 업체에서 일하는 김모 씨는 “주변 대부분의 한국 회사 직원들은 대부분 ESTA 비자를 통해 출장을 온다”라며 “회사가 주재원 비자 등 취업비자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ESTA로 돌려쓰고, 출장 전에는 일 관련 얘기를 절대 꺼내지 말라는 교육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속 입국이 의심받을까 때문 캐나다나 멕시코를 경유해 ‘여행’ 처럼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을 두고 현지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불법적인 출장 관행은 오랜 시간 동안 풀아온 문제라는 목소리

도 있다.

관련 업계 종사자 정모 씨는 “한인 기업들은 합법 체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비자 상태가 불분명한 한국인이나 외국인을 값싼 임금으로 투입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그 결과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번 ICE 단속에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인으로 활동한다면 현지 노동법과 이민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이곳 한인 기업들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은 LA, 뉴욕 등 ESTA를 이용한 한국 기업 직원들의 전반적인 출장 관행에도 경종을 울린다.

오완석 변호사는 “ESTA는 관광·친지방문 등 체류 허가일 뿐 노동 행위나 회사 업무 등은 절대 하면 안 된다”며 “단기상용비자(B1)도 회의·시장조사 등 단기 상용에만 한정되고 고용 관계나 노동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특히 입국 심사에서 휴대전화 메시지까지 확인하며 불법 취업이나 이민 의도를 보는데, 실제로 관련 대화가 발견돼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수백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조지아의 사태에 대해 기업들의 편법 행태도 문제지만, 트럼프 정부하에서 전문직 취업 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E2), 단기 상용 비자(B1) 등을 발급받기 어렵다는 점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정식으로 B1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최소 100일 이상 걸린다. 협력사는 원청인 대기업보다 비자를 받기 더 어렵다. 주재원 비자 등을 받으려면 원청 기업과 직접 고용 관계를 맺어야 한

다는 단서 조항 때문이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B1 비자 거절 확률은 27.8%에 달했다. 게다가 공장 건설이나 초기 가동에 필요한 수준의 기술·전문성을 갖춘 현지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단속 여파는 타지역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본지에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테네시 클락스빌 LG전자와 애리조나 LG 현장에서는 이민 요원들이 곧 올 수 있다는 소문이 나서 사바나 지역 한인 단톡방 등을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철수했다는 소식도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제조업·에너지 등 조지아 내 다수의 한국 기업이 현대차·LG 단속 소식을 접한 뒤 자체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으며, 직원들에게는 “신분 증명 서류를 항상 소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강한길 기자

한국인 불체 단속, 정치권 반응 엇갈려

민주 “무분별한 행동, 신뢰 약화” 공화 “불법 이민 재앙에서 보호” 제보자에게 문자 폭탄 이어져

대규모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300여명과 관련해 양국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속 직후 “(이민 당국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현대차 공장을 지역구에 둔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은 “난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용감한 법 집행관들이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불법 이민이라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 대담한 행동에 박수를 친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든 근면성실한 미국인에게서 일자리를 뺏아서 불법 이민자한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지켜보는 한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회아시아태평양계 코커스(CAPAC)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조지아주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한국 기업에 대상으로 한 단속에 우려를 표명했다.

의원들은 “한국 혈통을 다수 포함한 이민자 수백명이 구금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폭력적인 범죄자를 겨냥하는 대신 대규모 추방 할당 목표를 채우기 위해 직장이나 유색인종 사회에서 이민자들을 쫓고 있다”며 “이런 무분별한 행동은 가족을 찢어 놓고, 경제에 피해를 주며, 우리 글로벌 파트너들의

신뢰를 약화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한국계인 앤디 김 상원의원, 매릴랜드 스트리랜드 하원의원을 포함해 20명이 서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단속을 두고 “한국 기업과 정부에 미국 내 사업 운영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며 “한-미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공장 단속의 제보자를 자처한 조지아 12지구 공화당 하원의원 예비후보인 토리 브레넌은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잡지 폴링스톤은 브레넌에게 ‘한국과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망칠 셈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미성년자 자녀까지 사이버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강한길·장재원 기자

시민권 시험 에세이 추가 검토

시민권 시험에 에세이 항목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약시우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들 계획이며, 이민 당국이 어떤 이민자들을 시민권자로 승인할지를 결정할 때 좀 더 폭넓은 재량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에세이 요건을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 시험 난이도를 더 어렵게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시민권 문제 100개를

공부한 뒤 출제된 10개 문항 중 6개 이상을 맞추어야 하는 방식에서, USCIS는 이를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 맞추어야 하는 방식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약시우스는 여기에 에세이까지 추가되면, 이민법의 요건인 ‘양호한 도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민당국 직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약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경우 신청자들이 이에 반발해 USCIS에 대한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별 기자

한인 임신부 살해 용의자 ‘무죄’ 주장

시애틀 도심 한복판에서 한인 임신부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살해한 용의자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5일 코리 한 워싱턴주 공화당 아시아태평양계 의장에 따르면, 권이나씨(당시 34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코벌 모리스 고스비(29)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킹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고스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재판 절차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워싱턴주 법률상 태아를 독립된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아 태아의 죽음은 기소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코리 한 의장은 “피고인을 ‘환자’로 보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며 “부당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어 한인사회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스비는 오는 10월 16일 킹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재판 능력 관련 변론 심리를 받을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6월 13일 시애틀 지역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임신 8개월째였던 권씨는 남편 권성현씨(37)와 함께 차량에 탑승 후 무차별 총격을 받았다. 송영채 기자

로제 ‘아파트’ MTV 올해의 노래상...K팝으론 처음

“테디 오빠, 블랙핑크 멤버들 지수·제니·리사, 샹 탕어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금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 로제는 한국어로 기쁨을 나타냈다. 7일 미국 뉴욕 UBS 아레나에서 열린 ‘MTV 비디오뮤직어워즈(VMA) 2025’에서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아파트(APT.)’로 ‘올해의 노래’ 트로피를 받고서다.



MTV VMA는 그래미·빌보드·아메리카뮤직어워즈와 함께 미국 4대 음악 시상식으로 불린다. 이곳에서 K팝 가수가 ‘올해의 노래’를 수상한 건 로제가 처음이다.

황지영 기자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Mocurr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민 단속에 고용 쇼크 ... "ICE 뜨면 투자도 주춤"

ICE, 금기 깨고 노골적 일터 급습
미 기업들, 투자 멈추고 일단 관망
새 일자리 시장 예상보다 안늘어

"ICE가 들이닥치는 순간 기업 투자는 ice(얼음)가 된다!"

미국 자산운용사 피셔인베스트먼트의 케네 피셔 회장은 지난달 하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월가의 교장 선생님'으로 불릴 정도로 통찰력과 명성을 쌓은 인물. 그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활동을 ice(얼음)에 빗대 비판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사태를 트럼프 집권(1월) 이후 벌어진 "일터 급습의 최신 사례(The latest in a long line of work place raids)"라고 묘사했다. ICE는 캘리포니아·유타·매사추세츠 등의 현장을 급습해 왔다.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연간 1000만 명 추방"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다. 이번 사태가 연행자 수에서 최대 규모다.

피셔 회장의 진단은 지난 5일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8월 고용 통계에서 확



한국 구금 직원 면담하러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됐다. 사진은 7일 포크스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교정시설 앞에서 관계사 직원들이 구금된 직원들의 면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인된다.

새 일자리(비농업 취업자)가 전달보다 2만2000개밖에 늘지 않았다. 월가 예측치는 7만5000개 증가였다. 이에 앞서 5, 6월치도 목표보다 낮았다. 7월만

6000개 많았다.

미 전문가들은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새 일자리가 월 20만 개 정도 창출돼야 실업률이 급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기준대로라면 최근의 저조한 일

자리 추세로 인해 실업률이 급등하고 경기는 침체에 빠질 만하다.

그런데 8월 실업률은 4.32%에 그쳤다. 역대급으로 낮다. 게다가 8월 평균 임금이 지난해 8월보다 3.7%나 올랐다. 경기 호황 시기라고 착각할 정도다.

왜 이런 혼란이 벌어질까.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변덕에 따라 관세율이 춤춘다. 그동안 ICE가 일터를 급습하는 일은 금기였는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 바람에 경영자들이 투자(새 일자리 창출)를 사실상 중단하고, 현상 유지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의 사보타주(sabotage·태업)라는 것이다. 그 결과 일자리 창출은 둔화하는데, 해고는 늘지 않아 임금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폴 크루그먼(경제학) 뉴욕시립대(CUNY) 교수는 SNS에 게재한 칼럼에서 "기묘한 트럼프 모멘트"라고 지적했다.

ICE의 공격적인 단속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를 곤혹스

럽게 하고 있다. 임금이 호황 수준으로 오르는 바람에 미국인의 씹씹이는 탄탄하다. 그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진정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은 거세다. 16~17일(미국시간) 열리는 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정도 인하된다는 게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투자 최소화는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폴 도노번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 기업이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정치 지형이 바뀔 때까지 잠복하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Fed (The Federal Reserve)] 저자 로버트 헤첼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Fed의 통화정책이 1970년대 아서 번스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번스는 1970~78년 Fed 의장 시절 백악관 주문을 고려해 변덕스러운 통화정책을 폈고,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을 악화시켰다.

강남구 국제경제선임기자

출생시민권 제한→유학비자 규제→동맹국 기업단속... 지지층 결집 유도

미 국경차르, 한국공장 단속 언급
"대규모 작전 확대될 것" 압박 예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핵심 동맹국인 한국도 미국의 반이민 정책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강경 기조는 취임 첫날인 올해 1월 20일부터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남부 국경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장벽 건설을 재게 했다. 또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곧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을 개시했다. 2월에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170여 명을 인권 침해로 악명 높은 쿠바의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수용하는 충격 요법을 시행했다. 그는 3월엔 1798년 제정된 '적성국 외국인법'을 동원해 갠단 연루 혐의가 있는 베네수엘라인 200여 명을 엘살바도르 테러범수용센터에 수감했다. 이 무렵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심사 역시 대폭 강화했다.

인권 유린이라는 안팎의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이민자 단속과 체포는 더 심해지고 있다. 백악관 실세 중 한 명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실장은 "이민자 추방이 지지부진하다"며 지난 5월 21일 이민세관단속국(ICE) 간부들을 질책했다. 밀러는 이 자리에서 하루 3000명 체포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

다. 트럼프 2기 들어 첫 100일 동안 하루 평균 체포자 수(665명)와 비교하면 4배가 넘는 규모다. 최근에는 국토안보부가 국경 지역 철제 장벽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했다. 장벽 표면을 뜨겁게 달궈 불법 입국 시도를 막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된 일련의 반이민 정책은 불법 이민자 급증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안전마저도 위협한다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이들은 이민자의 범죄율을 강조하며 이민자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 등을 주장한다. ICE도 올해 6월부터 연내 불법 이민자

100만 명 추방이라는 목표를 공식화하고 이민자 단속과 추방 강도를 높이는 중이다. 이에 따른 마구잡이식 체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안보 총괄 책임자인 톰 호턴 국경차르는 7일(현지시간)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급습을 언급하며 "한국 공장 단속 같은 대규모 작전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작전이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도 치켜세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속을 위해 수용 능력 확대 방안도 고려 중이다. 텍사스 리브스카운티, 조지아 어윈카운티, 캔

자스 리브스카운티 등 폭력 사태, 의료 방치, 만성적 인력 부족을 이유로 폐쇄된 구금시설을 재개장할 계획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모두 민간 교정업체가 운영했던 곳으로 과거 폭력 사태, 의료 방치, 만성적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폐쇄됐다. 리브스카운티 수용소는 의료 부실과 고립 수감에 반발한 수감자들의 폭동이 일어난 곳이다. 어윈카운티에선 여성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산부인과 시술 의혹이 제기돼 미 의회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리브스카운티 시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폭력이 난무해 한 연방 판사가 "지옥의 구덩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고 한다.

위문희·한지혜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풀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저"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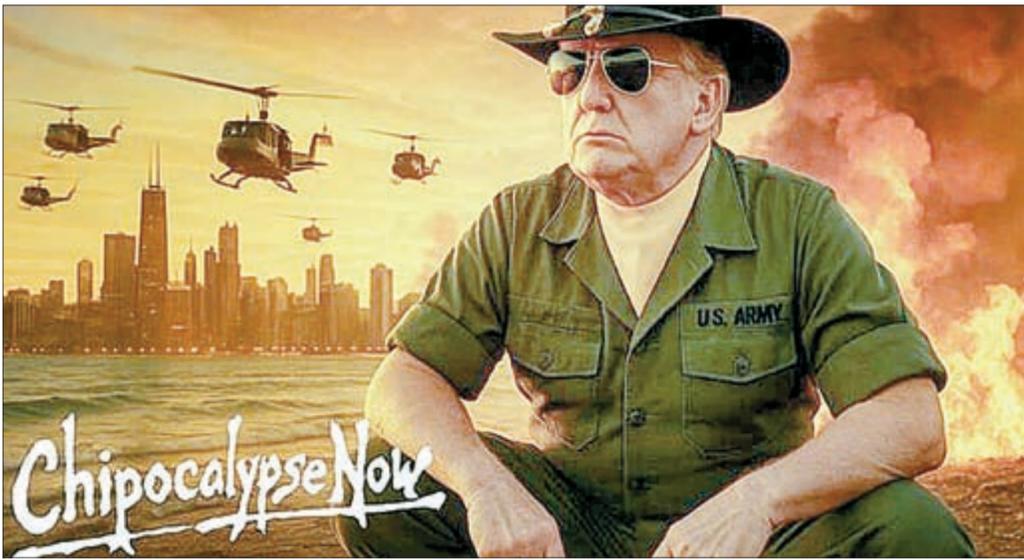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투숙 한국인 8명 중 3명 체포… 영어 못하면 더 강압적 연행”

한국인 묵었던 조지아 숙소 가보니 “단기 비자는 중범죄자처럼 끌려가 체포된 사람들 대부분 하청 소속” 정부, 자진귀국 동의서 작성 요청 전문가 “법 위반 인정, 나쁜 선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6일 영화 '지옥의 묵시록'을 패러디한 이미지를 SNS에 올리며 군을 통한 이민자 단속을 시사했다. [트루소셜 캡처]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단속으로 쑥 대밭이 된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 현대차-I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인근에 위치한 한 게스트하우스엔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주인 없는 방 3개가 생겼다. 불법 체류자로 몰려 체포된 한국인 직원 3명이 쓰던 방이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임태환 조지아 동남부 연합한인회장은 7일(현지시간) 중앙일보에 “한국인 직원 8명이 투숙하고 있었는데, 단속 이후 3명이 돌아오지 못했다”며 “간신히 체포되지 않고 귀가한 이들도 본사의 ‘즉시 귀국’ 지시를 받고 대부분 귀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근로자들의 단골 식당엔 체포를 피한 사람들이 모여 검거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검거 직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셉 김(가명)은 “나는 영주권자이고 미국 법인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풀려났다”며 “단

기 비자로 온 한국 근로자들은 중범죄자처럼 강제로 끌려갔다”고 말했다.

그는 단속반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먼저 열외한 뒤 비자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들을 강압적으로 분류해 강제로 벽을 보고 서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충분히 소명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며 “오히려 소문이 잘 안 되

면 더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연행해 갔다”고 전했다. 다른 동료도 “중앙일보를 통해 푸른색 수용복을 입고 구금된 사람들의 모습을 봤다”며 “모두 전문 기술자로 왔을 텐데 남의 나라에서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본 한국의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느냐”고 했다.

참사를 피한 한 하청업체 근로자는 “애초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주재원 비자(L-1 또는 E-2)나 인턴용 비자로 입국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포된 사람 중 대기업 소속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인 이유는 대기업이 돈이 많이 드는 정상적 비자 발급 대상을 본사 직원으로 최소화하고 비용과 위험부담을 하

청업체에 떠넘겼기 때문”이라며 “5~6차 하청업체들은 비용 때문에 B1, B2와 같은 단기 방문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직원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근로자 전원을 귀국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근로자 모두를 이민법을 어긴 범법자로 만들어 결국 근로자 개인이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구금된 인원 모두에게 자진 귀국 동의서 작성을 요청했다. 그런데 현지 변호사에 따르면 자진귀국은 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미 투자 업무를 담당해 온 로펌 빌슨 말린스의 앤드루 리 변호사는 “자진출국이 빠른 해결책인 것은 맞지만, 죄가 없는 사람까지 유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할 경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명을 요청한 한인회 관계자는 “한국 공장 대부분이 자동화 설비를 갖추면서 실제 고용 효과는 미미하다”며 “이미 현지 채용이 거의 없다는 불만이 가중된 가운데 이번 사태가 ‘한국인 불법 고용’의 증거로 받아들여질 경우 여론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배나=강태화 특파원

중국은 지금 ‘룬르’ 열풍… 미국 이민 막히자 일본행 러시

(潤日·일본으로 탈출 뜻 중국어)

트럼프 반이민 정책에 대한 떠올라 일본 거주 중국인 내년 100만 예상 외국인 사업체류 비자 발급도 수월 유명회사 설립, 집값 급등 그늘도

곳에 중국인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중국인이 적은 도시로 옮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파할 거로 전망했다. 7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같은 현상엔 “중국인 사이에 불고 있는 ‘룬르(潤日) 열풍이 있다”며 “일본이 중국 중산층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룬르는 일본행 탈출을 가리키는 은어다. 영어 ‘달아나다(run)’와 같은 중국어 발음표기(한어병음)를 가진 ‘윤(潤)’에 일본(日)을 합쳤다. 지난 2022년 상하이 등에서 펼쳐진 극단적 ‘칭링(清零·제로 코로나)’ 방역에 반발한 중국인들의 해외유학·이민 시도를 가리키는 ‘룬쉐(潤學)’에서 파생됐다.

지난 2월 『룬르-일본으로 탈출하는 중국인 부유층』(사진)을 출간한 저널리스트 마쓰토모 다케히로에 따르면 룬(潤)은 2018년 시작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동부유론으로 사회주의 이념이 강조되자 부유층과 중산층 사이에서 자산을 처분해 해외로 떠나는 움직임이 생기면서다. 국가보안법 시행(2020)으로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가 무너지고, 제로 코로나 방역이 시행되며 이런 경향은 커졌다.

가장 선호하는 탈출지였던 ‘미국’은

‘마가(MAGA)’ 세력을 등에 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선택지에서 제외되고 있다. 미국으로 탈출한 중국인이 일본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얼룬(二潤·2차 탈출)’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가장 좋은 대안으로 떠올랐다. 안정적 치안에 미·중에 비해 정치적으로도 자유롭다. 한자 생활권이란 이점에 자녀 교육도 잘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일본의 엔저 기조는 자산이 있는 중국인에게 좋은 환경이다. 마쓰토모는 “룬르 이주자는 1선 도시(베이징·상하이·선전 등 대도시) 거주자로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중국의 자립, HBM·EUV만 남았다

(고대역폭메모리(DDR)와외선 노광장비)

“고대역폭메모리(HBM) 임시 본딩의 난제는 이물질 제거입니다. 일부 재료 데이터는 여기서 공개하기는 어렵군요.” 독일 장비업체 수스(SUSS)가 HBM 제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자

행사장을 채운 관중 300여 명 중 다수는 30분 강연 전체를 녹화했다. 같은 시각 옆 강당에서 진행된 원자층증착(ALD) 장비 발표에도 HBM과 3D(차원) D램이 강조됐다. 강당 밖 전시관에

는 HBM용 TC-본더, TSV 장비가 곳곳에 있었다.

여느 반도체 행사의 익숙한 풍경이다. 단, 언어가 중국어라는 것만 빼면. 이곳은 중국 장쑤성 우시에서 열린 반도체 장비 전시회다. 주제는 ‘강한 중국, 세계를 품자’.

지난 4~6일 중국 우시에서 열린 제

13회 반도체설비연례회의(CSEAC 2025)는 중국 반도체가 ‘자립’을 뽑내는 무대였다. 극외선 노광장비(EUV)와 최신 HBM을 제외한 대부분 최첨단 기술에서 중국 업체들은 국산화에 성공했다. 행사를 주최한 중국 전자전용설비공업협회에 따르면 나우라·AMEC·ACM리서치 등 중국 대

표 장비기업을 포함해 22개국 1130개 기업이 참가했다. 1년 새 참가 업체가 40% 늘었다.

4일 개막식에서 자오진롱 나우라 회장은 “중국 대형 장비업체 12곳은 2021~2024년 연평균 45%씩 성장했고, 인공지능(AI)은 더 강력한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서현 기자

Care People Home Health

Care People Home Health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배워, 관리하는 최첨단 홈케어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10/6 ~ 10/10 → 전화 예약 필수!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글로벌 어린이재단 제 27주년 기념만찬

★ 일시: 2025년 9월 13일 (토) 오후 5시

★ 장소: 힐튼 맥클린 타이슨스 코너

7920 Jones Branch Dr. McLean, VA 22102

• RSVP: 이미미 회장 301.996.3338

• Ticket: \$150 PER PERSON

• 드레스 코드: 정장 / 드레스

본 재단의 제27차 정기총회(9/12~9/14)를 워싱턴 디씨 지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글로벌 어린이 재단 (GCF, Global Children Foundation)은 미국과 캐나다의 총 21개 주와 한국, 일본, 홍콩 지부에서 모인 어머니들의 모임으로, 전 세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 ◆ 이사장: 이서희
- ◆ 준비위원장: 황지연
- ◆ 주최: 글로벌어린이재단
- ◆ 총회장: 김제인
- ◆ 워싱턴디씨지부회장: 이미미
- ◆ 주관: 글로벌어린이재단 워싱턴디씨지부

특별후원

이경애 글로벌어린이재단 워싱턴디씨지부 이사 \$10,000

(고)채근희 글로벌어린이재단 워싱턴디씨지부 회원 \$10,000

GCF Board of Directors, GCF HQ, 백혜원, 이서희, 제인킴, GCF Japan, Angeline Cho, GCF Virginia, 이선희, 김정아, 김용남/안젤라, 신제인, GCF New York, GCF San Diego, 강명희, 강클레어, 금글라라, 박영주, 이미미, 이명자, 이명희, 이휘자, 정경애, 최평란, Chip & Catherine Jones, Yun Kwiok, Young Sook Kim GCF Michigan, 박인순, 김경순, 김오식, 심정림, 이영숙, 주미령, MD골프여성회, 황승희, Jonathan S. Choi (Amerikor Title & Escrow, LLC), 이석구 CPA

황지연내과 Donna Bella Laser 피부미용원, Kim Sohn Foundation (David & Gene Sohn), 전종준 변호사, 에덴 시니어 센터, 브라이언 정, 밥켓츠 변호사, 모커리 척추신경병원, 마우리왓츠 변호사, 김종준 스마트 보험, 김응권 척추신경병원, 강고은 옴니보험, KAPAC(미주민주참여포럼) 주정혜 부이사장, 한스여행사, 한미여성재단(강명희 회장), 주옥임 부동산, 자이언트 한인록, 메릴랜드 한인회(안수화), 메릴랜드 체육회, 메릴랜드 한국 문화 예술원, 대전여고 동문회, 경희대학교 메트로폴리탄 총동문회, 강상희 공인회계사, True Academy, Image Skin Clinic, Bageltowne(이요섭, 이미미), AAMCO(Keith Kim, 김신아), Gude Autocare(이종철, 이성숙), Kokie Cosmetic Inc (Chris Chun), 원혜경, 박준영 치과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9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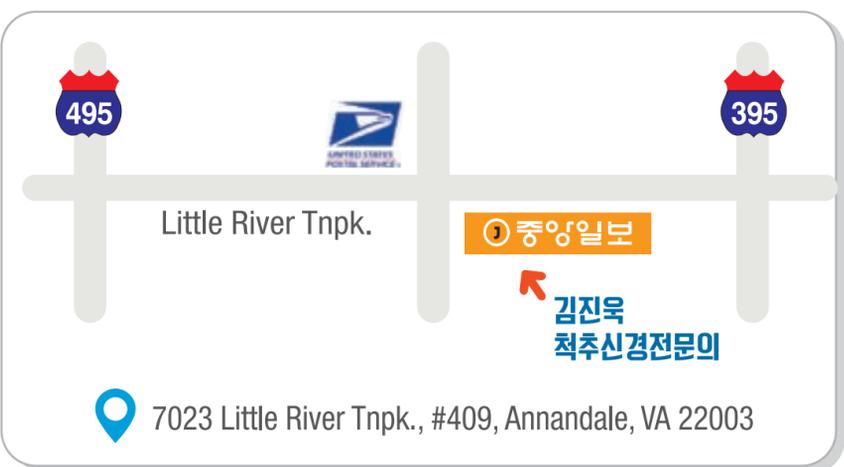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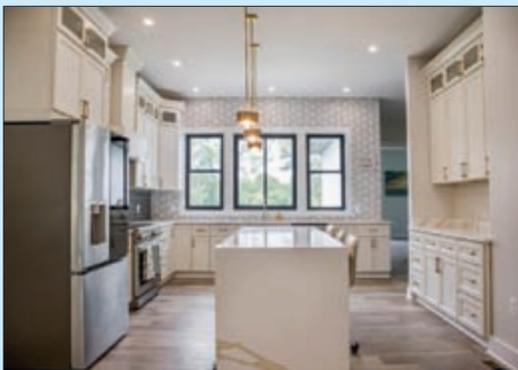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대통령·여야 '민생' 손잡았다

이 대통령, 여야 대표와 첫 회동
 대통령 "야당 목소리 많이 듣겠다"
 장동혁 "죽이는 정치 끝내달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으로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여야 대표 회동은 6월 22일 이후 78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오찬 뒤 장 대표와 별도 단독 회동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경제 회복 및 민생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악수조차 거부하던 여야가 이 대통령의 중재로 손을 마주 잡으며 협치의 물꼬를 댔지만 핵심 현안에 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동 뒤 공동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가칭)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대변인은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체는 장 대표가 제안했고,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구성됐다. 양당은 조만간 각 당의 실무 협의를 거쳐 민생 관련 공동 공약을 이행할 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여야가 함께 결과

를 만들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여당에는 국정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했고, 장 대표도 "공동 공약과 (기업인의) 배임죄의 개선 등 테마를 주제로 성과를 내자"고 말했다고 양당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협의체를 정례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야당이 요구할 경우 '영수회담'을 수시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박성훈 대변인은 "여야 영수가 머

리를 맞대고 현안을 풀어나갈 시기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낮 12시부터 시작된 오찬 회동은 당초 예정된 60분을 넘긴 8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공개 발언 때부터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양당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악수하는 등 '정치 복원'이 주요 화두였다.

김규태·윤지원 기자

대통령 "AI 3대 강국, 핵심 생존전략"

민관 협력·시스템 개편 등 강조
 상근 부위원장에 임문영 위촉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의 최상위 전략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AI전략위)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스스로 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사무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AI 같은 첨단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라며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한다면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AI정책 4대 원칙으로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 ▶민관

원팀 ▶AI 친화적 시스템 ▶AI 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 전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인 투자로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AI 네이티브" 관점에서 법과 제도, 생태계 전반을 재편해야 기술 추격을 넘어 추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문영 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을 상근 부위원장에 앉히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게 간사를 맡겼다. 김대현 삼성리서치 AI센터장, 김영옥 HD현대 최고AI경영책임자(CAIO),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등 34명이 민간위원이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선 두 차례 유찰됐던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재추진 방안이 보고됐다. 당초 정부가 지분을 51%를 확보해 정부 우위 지배구조를 쥐겠다는 계획을 바꿔, 민간이 70%가 넘는 지분을 갖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오현석 기자

정청래·장동혁, 37일만에 첫 악수 장 "마늘·쭈욱 먹으며 기다려" 농담

대통령 "손잡고 사진 찍자" 중재 정 "대통령, 오늘 하모니메이커" 취임 당시 '악수 거부' 선언 접어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야당과의 악수를 거부해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8일 처음 악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연찬장에 준비한 여야 신임 대표와 첫 오찬회동에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찬 회동 전부터 정치권의 관심사는 여야 대표가 악수할지였다. 정 대표가 지난달 2일 취임 일성으로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37일간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연찬장에 정 대표와 함께 들어선 뒤 먼저 도착해 기다리던 장 대표에게 다가가 먼저 악수를 건넸다. 그런 뒤 장 대표 손을 정 대표 쪽으로 이끌어 두 사람의 첫 악수를 유도하자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사진 촬영 때도 이 대통령은 "손을 잡고 찍으면 어떨까요"라며 다시 두 사람의 손을 끌어와 세 손이 포개졌다.

장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오늘 정 대표님과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과 쭈욱을 먹기 시작했다.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농을 던지자 장내에서 웃음이 터졌다.

장 대표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면서 "곧 취임 100일을 맞으시는데 짐이 무거우셨을 것 같다"며 "그 짐을 여당과 또 야당과도 함께 나누시면 무게가 덜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 특별 재판부 등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말했지만, 이 대통령은 "다 세계 하실 줄 알았다"며 농담으로 받았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한 발언을 인용해 "대통령께서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가 된 것 같다"며 "(야당과) 좋은 만남이 오를지라도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80분간의 오찬 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단독 회담도 가졌다.

김나한 기자



광복 발인 논란 독립기념관장, 국회서 시민단체와 충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오른쪽)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 발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의 위상이 도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간단한 집안일 도와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 개명 위기, 잘못 깊이 반성”

정성호 장관 “검찰 개편 이행 협조”
보완수사권엔 “남용 방지장치 필요”

“범죄 수사가 행정기능으로 전락”
검찰 내부망선 여전히 동요 확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무부에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고 8일 말했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모든 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힌 데 이어 법무·검찰 수장이 하루 만에 수용 입장을 낸 셈이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조직개편안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선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권한을 남용하려 했다는 국민적 불만이 많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특정인에 대한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특정인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결국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오용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라며 “주후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노만석 대행은 출근길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개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수용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특히 노만석 직무대행은 “모든 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수용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특히 노만석 직무대행은 “모든 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의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완수사권 논란에 대해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도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두 조직 수장의 수용 입장에도 검찰 내부에는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 부장 겸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근국 이래 사법 작용이었던 범죄 수사

가 준수법기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정 기능으로 전락했다”며 “수사를 적극적·능동적·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이 문자 그대로 증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말대로 ‘영혼 없는 공무원’이 뭐하러 나서서 제 책임이 아닌 일을 책임지겠느냐”며 “저는 책임이 아닌 수사에 대해 유죄를 확신하고 공소 유지를 할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현섭 부산지검 검사는 댓글에서 “비정상적 계엄으로 1960년대로 회귀한 것도 모자라 ‘검찰 폐지’로 1950년 ‘경찰 국가’로 회귀하려는 대한민국”이라며 “연좌제가 존재하던 시대 조상들은 얼마나 원통했을까”를 계속 떠올리게 된다”고 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은 “검찰의 활동 중 극히 일부만이 특정 정파, 특정인에 불리했느냐는 기준에 의해 검찰의 가치가 평가돼 조직이 소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기가막힌다”고 했다. 정진호 기자

“검찰개혁 정부기구에 당도 참여” “관여말라, 누구 뜻인지 좀 아시겠나”

(정청래)

(우상호)

고위 당정 협의회(7일)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주도권을 놓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견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마련하는 정부 기구 구성을 두고 도드라졌다. 당초 당정은 사전 실무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 검찰개혁 방안을 당·정·대통령실이 모두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우상호 수석이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이 빠진 정부 차원의 검찰 개혁 추진 기구를 주장하면서 정청래 대표와의 아슬아슬한 논쟁이 시작됐다.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우 수석이

“검찰개혁 관련 후속 입법안을 마련하려는 정부 기구에 여당이 들어오는 것은 관례상 모양이 맞지 않다”고 말을 꺼내자 정 대표는 “원래 사전 협의 때 당도 참여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우 수석은 “아니 의원 입법이 아니라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가 되는 건데 거기 당이 왜 관여하느냐”고 말했고, 정 대표는 “아니다. 사전 협의했던 초안대로 당도 후속 정부 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해야겠다”고 맞섰다.

두 사람 간 실랑이는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고 한다. 결국 우 수석이 “아니 내가 정치를 해도 막말로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했고 내 스타일을 잘 알지 않느냐”며 “내가 지금 대통령 이름 팔아서 내 주장을 하

검찰개혁 후속입법 주도권 싸움

고위 당정협의회 아슬아슬 논쟁

정 “원래부터 들어가기로” 따지자

우 “대통령 팔아내 주장 안해” 발끈

정치권선 “개혁 후속과정 갈등 예고”

리 여기 앉아 있나”라고 발끈했다. 이어 “나 그런 사람 아니다”며 “당이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좀 아시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당이 참여하지 않는 범정부 기구가 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초 당정이 사전에 당도 참여하는 형태의 기구를 만드는 거로 논의를 했더라도 그것은 초안이었을 뿐”이라며 “지금 이렇게 의견들이 다르니까 일단 총리실 산하 TF엔 대통령실과 정부만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하자”며 상황을 정리했다. 대신 총리실 산하 TF에 참가하는 외부 인사를 민주당이 일부 추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검찰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는 공식 브리핑은 상당한 진통의 산물인 셈이다.

두 사람의 기싸움을 두고 정치권에선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당정 갈등의 예고편”(민주당 관계자)이란 말이 나왔다.

전날 당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두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해 검찰의 기소·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윤지원 기자



정청래 (왼쪽)와 우상호 (오른쪽)의 모습. 정청래는 “원래부터 들어가기로” 따지자 우 수석이 “대통령 팔아내 주장 안해” 발끈, 정치권선 “개혁 후속과정 갈등 예고”

“내란특별재판부, 윤 계엄 같다” 박희승, 민주당서 첫 공개 비판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공개 목소리가 8일 처음으로 나왔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전을 펴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판사 출신인 박희승(사진) 의원은 이날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그는 “우리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되어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 법안을 통

과시키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에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재판이 되면 당장 법안에 대해 위헌제청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정리가 되지 않고는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재판을 해서 사람들을 정확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실제로 재판을 했다 나중에 그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위헌이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지구역 재판부의 영장 기각이나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부분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꼭 집어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끔 유도해야 한다”며 “국회가 나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도 비판했다. 조수빈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울 여름/가을에 따른 나을 주재원 3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8월 말 - 12월 말 입주 예정	\$2,000 - \$5,500 가격대 렌트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RENT)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8380 Greensboro Dr, McLean, VA	3년 (RENT)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1645 International Dr, McLean, VA	1년 (RENT)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1년 렌트는 잘 안 주는데, 주인이 에이전트를 붙이는 사행이라 받아줌.
11828 Dinwiddie Dr, Rockville, MD	3년 (RENT)	주재원, 세입자, 특히 가족이 좋아함
14010 Tanners House Way, Centreville, VA	3년 (RENT)	주재원, 이전 세입자 4년 살고, 하루의 공실 없이 3년 렌트 이어감
11357 Ridgeline Rd, Fairfax, VA	2년 (RENT)	사랑하는 교민
3484 Beale Ct, Woodbridge, VA	8/10 입주가능 (RENT)	\$2,200 2층 4룸, 방 3, 욕 3, 4차, 5차, 부엌 리모델링, 교통 상권 편리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그의 30여개 더 있음

지귀연 판사 “윤 내란 재판, 12월까지 심리 종결할 것”

이르면 내년 1월 1심 선고 나올 듯 재판 중계 놓곤 “신청 있으면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오는 12월에는 내란 재판의 심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12월 변론이 종결된다면 이르면 내년 1월에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16차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특검과 변호인들께서 원만히 협조해주신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이나 그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일응(일단)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9일 추가 구속기소돼 6개월이 되는 내년 1월 18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지 부장판사의 예상대로라면 그 이전에 1심 선고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가능하다. 지 부장판사는 “본 재판부는 현재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 피고인, 조지

일 역시 다른 주요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등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을 다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까지 세 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 사건의 병합 심리도 언급했다. 지 부장판사는 “세 개 사건은 현재 별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 재판의 중계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면 어떻게 한다”며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내란 특검법’에서는 특검과 피고인 쪽에서 재판 중계를 신청하면 재판장이 결정한다. 반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 개정안’에서는 재판중계를 원칙으로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국회가 수사기관인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까지 지정하는 것은 행정부가 가진 수사권 침해라며 내란 특검법 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이 조항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영장주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서민 기자

김건희 특검 ‘통일교 청탁 키맨’ 전진법사 구속기소

형사고발 무마 등 명목 수억원 받아 ‘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오늘 소환

건진법사 전성배(64·사진)씨가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사건 무마 등을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에 수차례 후원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도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대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희림의 세무조사 및 형사고발 무마 등 명목으로 4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카카오키오 계열사 출신이 설립한 스타트업 기업 콘랩 컴퍼니의 청탁을 받아 약 1억6000만원을 챙



긴 혐의가 있다. 희림은 2023년 7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11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희림의 사기미수, 업무방해, 입찰방해 의혹을 모두 불송치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전씨가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다. 전씨는 희림으로부터 2년 6개월 동안 34차례에 걸쳐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콘랩컴퍼니는 경기 의왕백운밸리에 조성된 무민밸리 테마파크를 총괄했는데, 이 사업 추진 관련 청탁과 알선을 받고 전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김 여사의 통일교 측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 공범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과 7월 운영호(구속기소)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

교 지원 청탁을 받고 그래프 목걸이, 사넬 가방 2개 등 총 8293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봉화군을 지역구로 하는 박창욱 국민의힘 경북도 의원의 후보 공천 관련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특검팀은 ‘이우환 화백 그림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날 김상민 전 검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9일에는 그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당시 김 여사 지원을 받아 경남 창원 의창 지역에 출마하려고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From Point) No.800298’를 1억4000만원에 구입해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현재 위작 논란이 일고 있다. 서희건설 만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매관매직 의혹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9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손성배 기자



SRT 추석 승차권, 교통약자부터 우선예매 8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시민들이 승차권을 구입하고 있다. 수서고속철도(SRT)는 이날부터 나흘간 추석 승차권(10월 2~12일) 예매를 받는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우선 예매와 전 국민 대상 예매로 나누어 예매 기간을 운영한다. [연합뉴스]

일본 방위상 10년 만에 방한 “한·미·일 북핵 공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8일 방한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한·미·일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자”고 합의했다.

앞서 일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

리가 전날 사의 표명을 한 가운데 일본 측 국내 변수에 관계없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일본 방위상이 한국을 방문한 건 지난 2015년 10월 이후 10년 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회담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 가운데 한·미·일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두 장관은 이어 “한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북·러 간 군사 협력 심화에 대해 한·미·일 공동 대처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 통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셔틀 외교’도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이런 일본 국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기존의 안보 협력 기조는 이어가자는 양국 국방당국의 의지 표명으로도 볼 수 있다.

이유정·심석용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347-3788

수잔 김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플빵 하나도 나누던 전태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매일 아침, 나는 서울 청계천 전태일기념관의 문을 열어 오빠를 만난다. 유리창 속 웃음, 손때 묻은 유품, 땀뻘뻘한 글씨가 55년 전의 그날을 증언한다. 그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처럼 다가온다. 전시실에서 마주하는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는 질문이다.

오빠의 시간은 대구시 남산동에서 시작됐다. 1948년 그 집에서 태어난 오빠는 잠시 따뜻한 가족의 품을 누렸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생활고는 장남이던 오빠를 너무 일찍 어른으로 만들었다. 청소년이 되기도 전에 평화시장 '시다'가 됐고, 어린 어깨 위로 시대의 가난이 앉았다. 70년 11월 12일, 오빠가 집을 나서던 마지막 아침이 지금도 선명하다. 야간중학교 월사금 150원을 채우지 못해 조바심이 나는 “돈을 언제 줄 거냐”고 재촉했다. 오빠는 웃으며 “며칠만 기다려, 다 해결해 줄게”라고 했다.

그날 밤, 오빠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뒤늦게 읽은 오빠의 일기에는 “나는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내가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저를 다 바치오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오빠에게 절했다는 부락을 한 나는 오래도록 미안함을 안고 살아야 했다. 당시 평화시장의 일상은 참혹했다. 환기도, 조명도 부족한 다락방 같은 작업장. 평균 나이 열다섯의 미싱공들은 하루 14~16시간을 버텨야 했다. 월급은 고작 커피 두 잔 값에 불과했다. 좁은 통로는 재단천에서 나는 기름 냄새로 가득했고, 환풍기가 없어 먼지와 실밥이 그대로 폐로 들어갔다. 바늘에 찔려 피를 흘리거나 눈이 상하는 일은 흔했지만, 제대로 치료받기는 어려웠다. 당시 신문 기사에도 “밤새 창문 없는 다락방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울린다”는 증언이 실렸다.

시대를 흔든 '프로메테우스의 불'

1960~70년대 한국은 수출제일주의를 내세우며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했다. 봉제·섬유·가발 등 노동집약형 산업이 국가 성장의 토대가 됐지만, 그 이면에서는 수많은 여공과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과 청춘이 희생됐다. 노동청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감독관은 대기업 공장에만 머물렀다. 작은 봉제공장은 “감독 대상이 아니다”며 사실상 법의 바깥에 존재했다. 70년 11월 13일, 스물두 살 청년 재단사는 평화시장 입구에서 몸에 불을

붙였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의 외침은 대학가와 성당, 공장으로 번졌다. 일부 언론은 “생활고의 비극”으로 축소했지만, 영안실에 모여든 사람들의 눈물과 분노는 노동현장으로 향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생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다. 당시 서울대 법대생이었던 시민운동가 장기표는 “전태일 이후 학생운동의 길이 달라졌다”고 회고했다. 추상적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의 노동 문제와 민중의 삶을 마주하는 전환점이었다.

학생운동은 방향을 틀었다. 그동안 대학가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라는 거대 담론에 전착했지만, 전태일의 죽음 이후 학생들의 구호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로 바뀌었다. 대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여공들과 함께 시위를 벌였고, 전국 각지에 노동야학을 세웠다.

전태일은 종교·법조·문화계 등 한국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문익환 목사는 그를 ‘우리 시대의 예언자’ ‘불법을 세상에 외친 순교자’라고 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전국적인 미사를 열었다. 조영래 변호사는 전태일의 수기와 유서, 동료들의 증언을 모아 『전태일 평전』을 집필했다. 억눌린 목소리를 복원하고 새로운 사회적 의제를 제시한 선언이었다. 시인 김지하는 ‘프로메테우스의 불’이라 노래했고, 백낙청은 ‘보살행’으로 해석했다.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같은 노동가요는 그의 불꽃과 연결된 집단적 기억을 만들어냈다. YMCA·YWCA·여성단체들은 노동자 무료 진료소와 야학을 지원했다. 일본 노동운동가들과 미국·유럽의 인권단체들이 전태일 사건을 성명서로 발표했고, 국제노동기구(ILO) 회의에서도 한국의 열악한 노동 현실이 의제로 다루어졌다.

전태일의 불꽃은 단지 한 청년의 분노가 아니라 제도적 변화의 시작이었다. 70년대 후반 근로감독관 확충, 여성·청소년 노동자 보호 강화가 이어졌고, 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초기 법은 현장의 위험을 충분히 담지 못해 ‘실효성 없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전국의 공장 노동자들은 대투쟁에 나섰다. 2700여 개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근로기준법 준수와 단체교섭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 결과 주 44시간제가 도입됐고, 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사용자 측의 반발과 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제도는 끊임없이 흔들



1965년 평화시장에 견수공으로 가 취업을 했을 때 동료들과 함께한 전태일(뒷줄 왼쪽에서 셋째). 그는 당시 열악했던 근로 조건을 바꾸는 데 온몸을 던졌다. [사진 전태일기념관, 중앙포토]

70년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분신 평화시장의 열악한 노동환경 고발

주 44시간제, 최저임금제 도입 등 사회 전반의 제도적 변화 잇따라

정규·비정규직 등 격차 커진 오늘 ‘노동 존중 문화’는 여전히 과제

한국 노동운동 주요 일지

1970년	전태일 분신 사망
1979년	YH무역 여성 노동자 농성
1987년	전국 노조 2700여 개 결성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1998년	정리해고제·과연제 도입 노사정위원회 출범
1999년	민주노총 합법화
2003년	주 5일 근무제 부분 도입
2006년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2009년	쌍용차 사태
2010년	복수노조 허용
2020년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2025년	‘노란봉투법’ 통과

렸다. 90년대 과건근로자보호법은 오히려 ‘합법적 비정규직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2000년대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 모성보호 강화 등 진전도 있었지만, 정책 후퇴와 노사 갈등은 반복됐다.

오늘의 현실은 어디까지 왔는가. 2024년에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청년의 죽음, SPC 제철공장의 끼임 사고, 포스코ENC 건설현장의 추락사, 배달 라이더들의 죽음, 사건의 이름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다. 안전보다 비용이 앞서고, 책임은 외주와 하청으로 전가된다.

어머니 이소선 여사 “열사 아닌 동지” 플랫폼 노동자는 앱 호출과 평점에 종속되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묶여 산재 보상에서 배제된다. 배달노동자는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건당 수수료’를 위해 달려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체불과 채해를 반복해서 겪는다. 주 5일제가 도입되고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됐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다’이다. 노조 조직률은 여전히 14% 안팎에 머물고,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30%를 웃돈다. 노동자 다수는 ‘노조의 울타리’ 바깥에서 있다.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는 사회적 신뢰를 흔들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내국인과 이주노동자의 격차는 더 깊어졌다. 오빠가 꿈꾸었던 ‘모든 노동자의 권리’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나는 오빠를 단지 ‘분신한 열사’로만 기억하지 않는다. 이소선 어머니께서는 “열사 말고 동지로 불러 달라”고 하셨다. 그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하루 종일 마음이 우울하다”며 늘 약자를 먼저 챙겼다. 어린 동생들의 학비를 마련해주려 애썼고, 구두닦이나 행상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사주었다. 배고픈 동료 소녀들에게 플빵을 나누어주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은 넉넉했고, 사랑이 가득했다. 그렇기에 마지막 선택으로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말할 수 있었다.

그의 죽음은 내 인생을 바꾸었다. 나는 노동사회학을 공부했고, 영국에서 학위를 마친 뒤 연구와 교육, 정치 활동을 거쳐 지금 전태일기념관을 지키고 있다. 젊은이들은 전태일 동상 옆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웃는 얼굴을 올린다. 오빠의 정신이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살아 있는 소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사람들은 가끔 묻는다. “오빠와 어머니의 삶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무겁지 않느냐”고. 그러나 나는 무겁지 않다. 그의 불꽃은 지금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 노동권의 보편화, 안전한 일터, 노동 존중 문화. 그 과제는 여전히 현재형이다. 정규직·비정규직, 내국인·이주노동자, 플랫폼·하청 노동자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종종 “변화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장은 고개를 젓는다. 변화는 선언이 아니라 변화를 굴리는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에서 비롯된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 오빠 전태일은 말했다.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힘에 겨워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땅’을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녀라 간다네.”

그가 맡긴 땅은 여전히 무겁다. 그러나 함께 굴린다면 그 무게는 희망이 된다. “나는 사람이다. 당신도 사람이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 단순한 진실 앞에서 ‘K노동’이 세계의 기준이 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전순욱**
전태일기념관 관장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9월 HOT 리스팅

셀러의 희소식 ~
집 팔려니 고민되시나요?
하루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리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새 빌더홈
페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3
\$1,000,000

새 빌더홈
페어팩스시티
타운하우스
방3, 화장실3, 차고2
\$930,000

새 빌더홈
철타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2, 화장실2
\$530,000

새 빌더홈
철타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2.5
\$670,000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셉션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연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우리말 바꾸기

‘작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말

“이사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 “심리학자의 소견에 따르면...” 이 표현들의 ‘소견(所見)’은 ‘전문적’이란 뉘앙스를 풍긴다. 이런 뉘앙스는 글로 적힌 문서, ‘소견서’란 표현에선 더 짙어진다. 특정 분야 전문가의 판단이 전제됐을 때 ‘소견’은 이처럼 실재 갖고 있는 의미 이상의 가치를 보인다.

‘소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물건을 보고 갖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이다. ‘작다’는 뜻이 없다. 다음 문장의 ‘소견’은 사전의 뜻풀이와 잘 맞는다. “상대방은 긍정적 소견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소견을 당당하게 발표했다.” 한데 일상의 말에선 또 다른 의미로 쓰인다. “제 소견으로는” “여기서 소견을 말씀드리는 건”이라고 할 때 ‘소견’은 작은 의견, 자신의 생각을 낮춘 말로도 이해된다. ‘하찮은 생각’쯤으로 더 낮춰 쓰이기도 한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분명하게 전달하려면 ‘소견’ 대신 ‘생각’이나 ‘의견’이라고 하는 게 낫다.

‘소기(所期)’와 ‘소정(所定)’에도 ‘작다’는 뜻이 없지만 오해하는 일이 흔하다. ‘소기’의 뜻은 ‘기대한 바’다. “우리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소기의 효과를 기대한다”처럼 쓰인다.

그렇지만 본래의 뜻이 아니라 ‘작은’ ‘적당한’ 정도로 이해하기도 한다. ‘소기’보다 ‘기대한’ ‘목표한’이 더 분명하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자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총기, 자기방어 대비라는 모순



김형재
사회부 차장

20년 전 인디애나주 미사와카라는 소도시에서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접했다. 낯선 나라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신기했다. 호기심은 커졌고, 한국에서 체험할 수 없던 여러 경험은 짜릿했다. 소방관으로 일하던 어학원 한 호스트가장은 소방서에 초대해 영화로만 보던 큰 소방차를 직접 설명해 줬다.

그 소방관에게 “당신도 총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었다. 미국인이란 다들 총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도의 질문에 소방관은 눈빛이 변했다. “나는 총을 소유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총이 자기방어 수단이라고 말하지만, 총기를 집에 둘으로써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

그때 소방관의 진지했던 눈빛과 표현이 아직도 생생하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총이 흔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가볍게 여겼던 내 경박함이 창피했다. 그 후 기자로 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취재하면서 그 소방관의 말씀을 이해하게 됐다.

10여 년 전 가디나 한 아파트 2층 현관에는 핏자국과 함께 알 수 없는 유기물이 흩뿌려져 있었다. 현장에서는 한인 남편이 아내를 총격 살해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형적인 ‘살해 후 자살(murder-suicide)’ 사건이었다. 남편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미궁에 빠졌지만, 가정불화로 추정됐다. 현관의 유기물은 총상에 의한 뇌수

였다. 총격 사건 현장의 처참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살해 후 자살은 비극 중에서도 비극이다. 단순 자살이 남은 가족에게 평생 가슴 아픈 트라우마를 안긴다면, 살해 후 자살은 커뮤니티까지 비통함에 빠지게 한다.

최근 한인사회에서 가족 살해 후 자살 사건이 다시 반복돼 우려를 키운다. 가해자의 공통점은 가장이면서 총기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정신건강 전문가는 ‘자살’을 정신건강이나 빠진 극단적 부작용으로 본다.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를 겪으면 삶을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 감정 기복은 반복되고 급기야 자살행동을 촉발한다. 특히 총기는 정신건강이 불안정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무기라고 한다. 정신건강전문가의 수장 정 박사는 “사람도 감정(변연계)에 지배되는 포유동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생리학적으로 이성(전두엽)은 25세가 되어야 정립된다. 분노에 휩싸일 때 총기가 옆에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충동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가정불화, 우울증 징후가 보인다면 총기는 더 더욱 경계해야 한다. 정 박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가족은 때로 가장 미워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가족을 내 의지대로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정에서 총기 소유는 멀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때로 자기방어를 이유로, 만일의 사태에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총구가 거꾸로 본인과 가족에게 향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감정 기복이 심할 정도로 이성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주변에 이를 솔직히 털어놓고, 전문가에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비극을 막는 첫걸음이다. 총기 소지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주는 2016년부터 ‘총기 폭력 제한 명령(GVRO-Gun Violence Restraining Order)’을 시행 중이다. 누군가 정신건강이 불안정하고 총기 폭력 가능성까지 보일 경우 법집행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해당 인물의 총기 구매·접근·소지를 금지할 수 있다. GVRO(reducetherisk.ca.gov 참조)는 가족, 동거인, 직장 동료, 고용주, 학교 관계자, 친밀한 파트너 등 우려 대상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열린광장

사랑의 씨앗을 심으며 살자



이창민
목사·시온연합감리교회

얼마 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는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를 기념하는 선교대회가 열렸다.

140년 전, 한국 근대 여성 교육의 산실인 이화학당을 세운 메리 스크랜턴은 클리블랜드 지역의 감리교 ‘여성해외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조선 땅을 밟았다. 그녀의 아들이자 클리블랜드에서 의사로 있던 윌리엄 스크랜턴도 어머니와 함께 조선에 들어와 병원을 세우며 복음의 터전을 닦았다. 그들이 전한 것은 복음만이 아니었다. 배움의 길이 막힌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치료받을 길조차 없던 병자와 장애인들에게, 그리고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숨죽이면 살아야 했던 이들에게 교육과 치료를 통해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 주었다.

그러기에 한국의 선교 역사는 단순한 복음 전도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존엄을 회복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한국 선교의 기초를 놓은 두 선교사를 배출한 도시에서 열린 선교대회는 단순한 회고회 아니었다. 그것은 140년의 세월을 잇는 대화의 장이었고,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성장한 한국 교회가 복음의 빛을 갠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자리였다. 선교대회 참석을 위해 LA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중간 기착지인 디트로이트에 순조롭게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연결편이 연달아 지연되면서,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클리블랜드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은 부르스 목사였다. 푸근한 인상의 부르스 목사는 클리블랜드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 올해 은퇴했다고 했다. 그의 차를 타고 가면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준 클리블랜드에 와서 따뜻한 환대를 받으니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그는 지난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자신도 극진한 환대를 받았으며 유쾌하게 웃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꼭 가보고 싶었다고

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발전한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감사했다고 했다. 더구나 그가 메리 스크랜턴과 윌리엄 스크랜턴을 파송한 클리블랜드 출신이었기에 그에게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많았다.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감사의 인사를 받았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이 한국인들에게 감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을 때, 죽음의 위기에서 그의 아버지를 구해 준 이들이 바로 한국에서 파병된 해병대였다는 것이다.

140년 전, 클리블랜드에서 출발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한국에 전해졌고, 그 마음을 배운 이들이 베트남 전쟁 중에 죽음의 위기에 빠진 클리블랜드 출신 미군 병사의 생명을 구해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베푼 사랑과 도움이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진리를 떠올렸다. 오늘 우리가 심는 사랑의 작은 씨앗이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큰 나무가 되길 소망하며, 사랑의 씨앗을 심으며 살자.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1. 우드브리지 싱글 Coming Soon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학군/동네, 전부 업그레이드, RT1/95/234	2. 사우스라이팅 타운 Coming Soon \$645,000 2014년,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3. 에쉬번 타운 Coming Soon \$670,000 2012년, 방, 화3.5, 최고 학군, RT267/50/28/607, 밀러스 공항	4. 왓슨 하이, 프레스티지 \$1,450,000 2025 새 싱글 방5, 화5.5, 5,000sqft, 차고2, 모던 디자인, 123/236/GMU	5. 첼트리 하이 싱글 \$1,050,000 방4, 화3.5, 4,000sqft, 차고2,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merd	6. 던로링메트로일 콘도 \$460,000 방1, 화1, 1/2 층 오픈 loft, 1,835sqft, 전부 리모델링, 마루	7. 맥클린 콘도 \$409,000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8. 센터빌 벙커타운 \$589,000 방3, 화2.5, 차고1, Hmart인근, 29/Braddock/28/66	9. 에쉬번타운 RENT \$3,300 전체마루, 2 차고, 맥, BRIAR WOODS high, 267/607	10. 케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케인스빌 레이크 매너스 Stoneh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11. 애너데일 싱글 SOLD \$699,000 Braddock/Backlick Rd 만나는 Giant 인근, 최고 로케이션, 방3, 화3, 커포치1, 새지붕, 드라이브웨이 4대, 뒷숯, 2,312sqft, 0.46acre, Sold As Is, 리모델링, 투자까지 뉴욕, 동네시세 보다 삼만불이상 싼집, 395/236/495/95/66
--	---	--	---	---	---	---	---	--	---	--

12.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럭셔리 싱글 \$1,699,000
1 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5.5, 차고
• Wolf/Sub Zero 주방, 커스텀 벽난로 하드우드 바닥
• 선풍,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아이 리저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아이 주방, 벽난로, 연못, 분수, 테크, 음향 시스템 등) 골프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교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er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32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50 유럽유심 \$50 eSIM 판매 시작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센터빌지점)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타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안편

2026년 여행 미리 계획하세요

Wonderful TOUR 2025-26 Yearly Schedule

09/16~09/26	고품격 고국일주 3차	마강양박	\$2990+항공
09/24~10/04	그리스&튀르키예		\$2990+항공
09/30~10/13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4590+항공
09/30~10/06	정통 동유럽		\$2790+항공
10/05~10/13	크로아티아 발칸		\$3590+항공
10/07~10/17	스페인&포르투갈	마강양박	\$33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3590+항공
10/14~10/24	고품격 고국일주 4차	마강양박	\$2990+항공
10/20~10/28	튀르키예 일주		\$1990+항공
10/21~10/31	고품격 고국일주 5차	마강양박	\$2990+항공
10/28~11/07	고품격 고국일주 6차	마강양박	\$2990+항공
11/21~12/02	이집트 두바이		\$3899+항공
11/23~11/27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190+항공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2490+항공
12/23~12/30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2290+항공

2026

01/21~02/03	신비의 인도&네팔		\$4790+항공
01/27~02/11	페루&우유니사막&파타고니아		\$9990+항공
02/01~02/11	오주&뉴질랜드		\$3190+항공
02/03~02/07	코스타리카		\$1290(항공포함)
02/07~02/15	바하마 크루즈(뉴저지 출발)		\$1599(인사이드) \$1899(가려진 발코니)
02/19~03/06	아프리카&두바이		\$12500+항공
02/25~03/02	페루 일주		\$2990+항공
02/26~03/07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3590+항공
03/16~03/28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5490+항공
03/16~03/23	브라질&아르헨티나		\$3190+항공
03/22~03/28	페루 일주		\$2990+항공
03/31~04/10	고품격 고국일주 1차		\$2990+항공
04/21~05/01	고품격 고국일주 2차		\$2990+항공
04/22~05/02	정통 서유럽		\$3590+항공
04/29~05/12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4590+항공
04/29~05/05	정통 동유럽		\$2790+항공
05/04~05/12	발칸 크로아티아		\$3590+항공
05/05~05/15	그리스&튀르키예		\$2990+항공
05/12~05/22	스페인&포르투갈		\$3390+항공
05/19~05/29	서유럽 3개국		\$3590+항공
05/22~05/25	메모리얼 특선 엘로스톤		\$1290+항공
06/02~06/10	아이슬란드 일주		\$5690+항공
06/09~06/17	스위스 알프스 일주		\$4590+항공
06/10~06/20	정통 서유럽		\$3590+항공
06/16~06/26	고품격 고국일주 3차(영&한)		\$2990+항공
06/17~06/28	영국일주		\$5890+항공
06/20~07/03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5690+항공
06/23~07/03	북유럽 4개국		\$4590+항공
06/30~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1690+항공
07/01~07/04	독립기념일 특선 엘로스톤		\$1290+항공

*산토리니 옵션

그리스&튀르키예

이스탄불-카파도키아-코아-파묵칼레
 트로이-까발라-데살로니카-아테네

9/24~10/4 | 10박 11일 \$2,990+항공

정통 동유럽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유럽의 역사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품.

9/30~10/6 | 6박 7일 \$2,790+항공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9/30~10/13 | 13박 14일 \$4,590+항공

크로아티아 발칸

아른 현대사에도 매몰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발칸
 중세도시 건축물이 압권인 크로아티아

10/5~10/13 | 8박 9일 \$3,590+항공

마강양박

스페인&포르투갈

세비아/론다/지브롤터/미하스/말라가/그라나다
 톨레도/마드리드/세고비아/몬세라트/바르셀로나

10/7~10/17 | 10박 11일 \$3,390+항공

이태리 일주

로마의 고대 유적부터 베네치아의 낭만적인 운하까지
 이태리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크리스마스 특별 여행!

12/23~12/30 | 7박 8일 \$2,290+항공

코스타리카

국토가 국립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멋진 자연풍경을 자랑하는 곳!

2/2~2/6/25 | 4박 5일 \$1,990+항공

이집트 두바이	11/21~12/2	11박 12일	\$3,899+항공
페루&우유니&파타고니아	1/27~2/6/26	15박 16일	\$9,990+항공
아프리카 두바이	2/19~3/6/26	15박 16일	\$12,500+항공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정통 서유럽

10/9~10/19

10박 11일 \$3590+항공

특전

- 전일정 4성급 이상의 럭셔리 호텔
- 런던-파리간 해저터널을 관통하는 고속열차 유로스타 포함
- 스위스의 전원풍경이 펼쳐지는 융프라우 산악열차 탑승 포함
- 런던 피쉬맨칩, 파리 에스카르그, 스위스 фонд 등 전통 음식 포함
- 현지 스타가이드와 탑여행사 전문 인솔자의 입체적인 안내

ROYAL CARIBBEAN

크루즈

인생 바캉스

일본 크루즈

11/3~11/14 | 11박 12일
 \$2990(+항공 부터~/인사이드)
 *도쿄, 나고야, 오사카, 오키나와
 가고시마, 나가사키

바하마

2/7/26~2/15/26 | 8박 9일
 \$1599(인사이드), \$1899(가려진 발코니)
 *Odyssey of the Seas 17만톤급
 *예약 가능한 캐빈이 한정되어 있으니 예약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로열캐리비안이 독점 운영하는 민간 섬으로,
 "Perfect Day at CocoCay"라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탑여행사 크루즈 전문 가이드가 직접 모시고 갑니다.
 레크리에이션 전문 가이드가 동행해 배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고품격 고국일주

탑여행사 한국지사가 직접운영합니다

10박 11일 \$2990+항공

고국여행과 일본여행을 한번에!!

3차 09/16~09/26	오사카 3박 4일	동경 3박 4일	일본크루즈 11박 12일	동경&오사카 5박 6일
4차 10/14~10/24	실속 9/27-9/30	실속 10/25-10/28	11/3-11/14	11/8-11/13
5차 10/21~10/31	실속 11/49+	실속 11/49+	인사이드 \$2990+*	실속 \$1899+*
6차 10/28~11/07	다릭스 \$1799+*	다릭스 \$1799+*	오션뷰 요금문의 받코니	다릭스 \$2699+*

특전

-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 모든 옵션 포함
-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 로이드 서울/전통 연립미술관/여수 스토리/가계 소노리/부산 그랜드프린트/경주 라인호텔/속초 롯데호텔/제주 롯데호텔
- 엄선된 호텔과 현지 식당 특식으로 대접합니다

여행지

서울/전주/담양/순천/여수
 광양/하동/진주/거제/부산
 울산/경주/경동진
 강릉/속초/계주

Together in Korea (매주 2인 이상 출발보장)

6박 7일 내륙	한 \$1499+*/영 \$1699+*
3박 4일 서남권	한 \$829+*/영 \$929+*
4박 5일 동해안	한 \$989+*/영 \$1119+*
2박 3일 제주도	한 \$499+*/영 \$749+*
6박 7일 제주+동해	한 \$1549+*/영 \$1879+*
9박 10일 전국일주	한 \$2199+*/영 \$2599+*

T.M.C.I. 한국관광검진

한양대학교 (기본검진)
 남/여 \$520

서울삼성병원 (Primary)
 남 \$1340/여 \$1660

서울대병원 (기본검진)
 남/여 \$940

세브란스 (미국국적)
 남 \$720/여 \$770

현대아산병원/경희대병원
 기전대검진

당일 단풍특선

지난해 조기 마감된 인기 일정! 이번엔 늦기 전에 서둘러 예약하세요.

킹버랜드 기차 여행

10/18(토), 10/22(수), 10/25(토)
 10/27(월), 10/30(목), 11/1(토) \$179

성구 노아

+아미슈마켓 당일

9/30, 10/16,
 10/29, 11/13, 12/4 \$199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퀘벡/플래츠버그/뉴욕

5박 6일 \$1350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3박 4일 \$899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2박 3일 \$650

뉴욕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미서부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일산 여행

8박 9일 \$1540+항공

알래스카

5박 6일 \$990+항공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640+항공

엘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마운트 러시모어

3박 4일 \$1090+항공

코스타리카

5박 6일 \$1300+항공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중일일보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촌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교육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LENNOX,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uesday, September 9, 2025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평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담당 하십시오.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4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우수학생 확보 위해 조기 전형에 초점

조기 전형 분석 및 전략

미국 대학 입시 과정에서 조기 전형은 합격 가능성을 높이고 지원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전략적 선택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일부 명문 대학에서 조기 전형 지원자의 합격률이 정기 전형 (Regular Decision) 지원자 보다 높다. 심지어는 조기 전형 합격률이 정기 전형 보다 두 배 이상이었다. 11월 1일 마감일을 앞두고 전략이 필요하다. 얼리 액션과 얼리 디시전의 차이, 장단점, 준비 전략을 알아본다.

대입을 앞둔 고교생이라면 누구나 명문 대학 입학에 원한다. 반면 대입을 앞둔 명문 대학 입장에서 우수 인재 찾는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대입 시스템은 우수 학생의 숫자가 제한적이라는 가정과 이들을 꼭 자기 대학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대학들의 격전지라고 볼 수 있다. 한 학생이 단 한 곳의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합격 허가를 했음에도 다교에 우수 학생을 뽑기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 이런 저런 환경 아래에서 일부 명문 대학들이 자기 대학에 꼭 오겠다는 지원자의 서약을 받고 미리 합격증을 주는 제도가 바로 조기 전형 중 얼리 디시전이다.

한편 대학들의 인재 확보 경쟁이 가열되면서 정기 전형보다는 조기 전형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이면서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이 빨라지고 있다. 대학들의 조기 전형에 맞추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바꾸고 있다. 이런 추세를 따르고 있는 한인 타운 유일의 한인 운영 사립 종교교인 NCA(교장 제이슨 송)의 경우, 9~12학년의 고교 과정을 8~11학년으로 앞당겨 대입 준비에 나서고 있다.



조기 전형은 합격률이 높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대학을 신중하게 잘 선택하고 제대로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copilot 생성]

얼리 디시전 통해 우수 인재 선점 겨냥 합격률 상대적으로 높아 도전해 볼 만

- 1. 조기 전형의 종류**
조기 전형은 대학에 정기 전형보다 일찍 지원하는 제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정기 전형은 12월31일에 마감하거나 1월초에 마감하는데 조기 전형은 훨씬 이른 시기에 마감한다. 왜냐하면 조기 전형을 통해 모집 정원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정기 전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1) 얼리 액션(Early Action, EA): 조기 전형의 일반적인 형태로 합격증을 받고도 다른 대학에 등록할 수 있다. 마감일은 보통 11월 1일이며, 12월 중순 결과가 발표된다. 여러 학교에 얼리 액션으로 지원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

- 담이 적다. 대표적인 학교가 미시간 주립, 조지타운대를 꼽을 수 있다.
(2) 얼리 디시전(Early Decision, ED): 합격하면 꼭 등록해야 한다.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구속적(binding)이라고 얼리 액션과 구별한다. 마감일은 EA와 비슷하며, 일부 대학은 ED II(1월 마감)를 제공한다. NYU나 듀크가 있다. 또한 아이비리그 대학중 HYP를 제외한 대학들이 모두 채택하고 있다. 이들 세 대학에 우수 학생을 뽑기지 않으려는 의도다.
(3) 리스 트릭티브 얼리 액션(Restrictive Early Action, REA): 얼리 액션의 변형으로, 다른 대학의 얼리

디시전에는 지원할 수 없지만, 공립대 얼리 액션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하버드나 스탠퍼드의 경우, 낮은 합격률 덕분에 우수 학생들이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문호를 열어 주는 것이다.

2. 조기 전형의 장단점

(1) 조기 전형의 장점으로는 합격률이 높다는 점이다. 경쟁이 덜 치열하고, 대학이 지원자의 진지한 관심을 높이 평가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정기 전형보다 2~3배나 높다. 우수 학생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이 선호하는 덕분에 지원자 입장에서 높은 합격 기회를 엿볼 수 있다. 또한 12월 중순에 결과가 발표되므로 얼리 디시전의 경우, 일찍감치 입시에서 해방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기 전형 지원 전략을 조정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얼리 디시전의 경우, 합격 후 재정 지원 패키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

(2) 조기 전형의 단점으로는 얼리 디시전을 통해 합격할 경우,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할 경우 큰 후회를 할 수 있다. 또한 재정 지원 패키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선택이 제한된다. 더군다나 정기 전형에 비해서 마감일이 비교적 이른 편인 11월 1일 마감일 때문에 에세이와 추천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을 수 있다. 특히 명문대의 EA/ED 지원자는 우수한 학생이 많아, 준비가 부족하면 불리할 수 있다.

3. 조기 전형 준비 전략

조기 전형 성공은 철저한 준비와 전략에 달려 있다. 12학년생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다. 장병희 객원기자

▶▶2면 '조기 전형'으로 계속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세계와 만나는 창
The Korea Daily
"미국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True Education BUILDING FUTURES
새 학년 준비반 모집
지난 학년 부족했던 과목을 보완하고 새 학년을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True Education이 자녀의 학업 자신감과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백투스쿨 스페셜 이벤트
Free Trial - Choose Any 4 Classes!
지금 전화주시면 원하는 과목을 무료로 체험 할 수 있는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 English ☑ Math ☑ Biology ☑ Chemistry ☑ Physics
☑ US History ☑ World History ☑ Computer Science
*Limit Offer
True Education에서 이유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2025 Our Students Got Accepted to
YALE, Stanford, Penn, SMU, etc.
Founder **Jim Narangajavana**
하버드대학교 졸업
1997년 C2 Education 설립
469-430-5808 (한국어 상담) 844-SAT-1600
1340 Old Chain Bridge Rd. #200, McLean, VA 22101
WWW.TRUEEDUCATION.COM

우주항공청의 도전적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지난달 26일 스페이스X의 초대형 발사체 스타십의 10차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비록 1단 슈퍼헤비화 화력 귀환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의도했던 여러 시험을 통과했다고 한다. 이번 임무의 핵심은 위성 적재 및 분리 장치 검증하는 것이었다. 2단 스타십은 8기의 모의위성을 성공적으로 사출하고 발사 66분 후 대서양으로 내렸다. 이 발사 성공으로 스타십은 완성에 가까워지면서, 머스크의 평생 꿈인 '화성 식민지화'는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팰컨9 로켓은 재사용을 내세워, 지난해 전 세계 지구궤도 물체 질량의 85%를 발사했다. 올해는 90%가 넘는 정도로 이미 전 세계 발사체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이제 파괴적 혁신의 스타십까지 발사에 본격적으로 가담하면 우주산업에의 영향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일회용 로켓이 재사용 로켓을 거쳐 항공기처럼 이착륙하는 신속 재사용 로켓으로 발전한다는 로드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발사 비용이 크게 떨어지면 우주개발 아이디어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전 세계 우주경제는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길을 잃은 우주개발정책?

우리나라도 지난해 5월 우주경제 구현을 기치로 내걸고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을 발족시켰다.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서 우주청이 출범한 지 이제 만 1년이 훌쩍 넘었다. 경남 사천이라는 불리한 입지조건에도 우주청 구성원을 착착 뽑아 조직을 갖췄고, 이제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 정부기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우주항공 관련 정

출범 후 1년 넘은 우주항공청 '기대 못 미친다' 비판 들려와 차세대발사체 계획 뒤틀리고 관련 산업 일거리에도 빨간불

책·지원·진흥 등의 행정 업무만이 아니라, 임무분부를 설치해 발사체·인공위성·우주탐사·항공의 4대 분야 국가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강력한 조직도 갖추었다.

하지만, 인내심 부족 탓일까. 여기저기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려온다. 우리 정부의 우주개발이 길을 잃고 있다는 비판에서부터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우주산업 생태계가 비틀거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우주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초대형항법위성(KPS) 개발 사업이 이런저런 사유로 비틀거리고 있다. 우주경제에 가려 항공은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다.

우주청은 새로 발족하면서 많은 민간 우주항공 전문가들을 채용했다. 이들이 내외부 전문가들과 조율해 차세대발사체를 세계적 추세인 재사용으로 전환하자는 개발 방안을 위원회에



오는 11월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둔 고흥 나로우주센터. 최근 4호기 조립이 완료됐다.

[사진 우주항공청]

울렸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부결되었다. 신설된 우주청이 처음으로 내놓은 주요 정책이 거부되면서 큰 상처를 입었다. 다시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관련 산업계의 지속적인 일거리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들어 미국·중국 등에서 개발 중인 새 로켓들은 대부분 재사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로켓을 개발하려면 사용연료부터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설계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연료 선택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팰컨9 멀린 엔진의 등유와 현재 개발 중인 재사용 발사체들이 채택하는 메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이다. 등유를 사용하는 팰컨9은 이미 전 세계를 압도하며 그 성능을 보여줬다. 한데 등유를 사용하는 재사용 엔진은 현재 멀린 딱 하나이다. 왜일까. 등유는 분자구조가 크고 복잡해 완전연소가 힘들어 연소 후 그

음음이 생긴다. 이 결점 때문에 재사용 엔진에는 고려되지 않았다.

머스크가 팰컨9의 재사용을 외쳤을 때 전 세계 전문가들이 코웃음을 쳤던 이유이다. 그랜저지 메탄이 현재 재사용 연료의 대세가 되고 있다. 우주청이 어느 연료를 빨리 결론을 내주어야 관련 업체들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우주청의 대형사업들이 휘청릴 때 이를 앞장서서 바로 세워야 할 우주청 임무본부장의 활약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우주항공개발 임무 추진의 책임자로서 미래 전략을 짜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전체를 총괄하면서 내·외부 문제를 조율하고, 사업 추진 때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큰 권한과 책무가 주어진 게 아닌가. 격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 우주청의 현황과 우리의 대응 미국·유럽·일본 등 우주강국 우주청

들도 현재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달탐사용 로켓 SLS와 우주선 오리온 개발에 900억 달러 이상을 썼지만 단 한 번의 발사 실패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는 NASA 예산의 25%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 산하 제트추진연구소(JPL)는 우주탐사에 취해 있다가 연속된 대량 해고로 존립이 위태롭다. 일부 비판자들은 NASA를 '아폴로 이후 무발전(No Advancement Since Apollo)'의 약어라고 비아냥댄다.

유럽우주청(ESA)도 새로 개발한 로켓, 아리안6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쟁력 없는 일회용 로켓인데도 개발이 지연되어 이제 겨우 2회 발사에 머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자체 위성발사 우주탐사선을 미국 스페이스X 로켓으로 올리고 있다.

일본도 유사하게 H3 로켓을 일회용 로켓으로 개발해 몇 기 발사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어려운 처지이다. 러시아도 발사 횟수에 있어 예전에 비하면 손을 놓고 있는 듯하다. 중국만이 어느 정도의 로켓 발사 횟수로 따라붙고 있다. 하지만 주력 로켓의 발사능력이 낮아 궤도에 올린 총 질량은 예상보다 적다.

다른 우주청들의 고전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도 한다. 이를 기회 삼아 도약하기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 현 정부가 우주청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아니면 현재 리더십을 교체해서라도 우주청이 미래를 기획하고 소신 있게 사업을 밀고 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

▶면 '조기 전형'에서 계속

(1) 대학 선택과 목표 설정: 우선 대학 리스트를 점검해서 빨리 지원 대학을 1~3곳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 특히 ED는 한 곳만 선택 가능하니, '드림스쿨'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 학교가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이 서야 한다.

캠퍼스 방문, 재학생과의 대화, 졸업생 인터뷰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일단 결정되면 대학별 EA/ED 요구 사항(예: SAT/ACT, 추천서)을 철저히 확인한다. 특히 표준 시험이 선택인지도 점검하라. 최근 일부 명문대학이 선택에서 필수로 바꾸는 추세다. 대략 점검이 마무리 되면 최종적으로 대학별 마감일을 공통지

원서(Common App)에서 확인하고 캘린더에 기록한다.

(2) 에세이 작성과 피드백: 대입을 위한 공통지원서에서는 공통 에세이(650자 이내)를 통해 지원자의 개성과 열정을 보여줘야 한다. 여름 동안 초안을 완성하고, 교사나 멘토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대학별로 요구하는 추가 에세이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왜 이 학교를 선택했는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사이트인 College Essay Guy(www.collegeessayguy.com)의 에세이 가이드를 참고해 초안을 다듬는 것도 좋다.

(3) 추천서와 서류 준비: 교사 1~2명과 카운슬러에게 이력서와 전공 관심사를 정리한 자료를 제공해서 구체적

인 추천서를 받도록 한다. 또한 성적표, SAT/ACT 점수, 활동 리스트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한다. 공통지원서에서 서류 업로드 상태를 확인한다. 추천서 요청은 이메일로 정중히 한다.

(4) 재정 지원 계획: 얼리 디지전 지원자는 합격 후 재정 지원 패키지를 확인해야 한다. 10월1일 오픈하는 FAFSA를 미리 준비한다. 또한 가족 회의를 통해 재정 상황을 논의해 얼리 디지전 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얼리 액션을 고려하거나, 얼리 디지전 대신 정기 전형으로 여러 학교의 재정 지원(financial aid)을 비교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5) 인터뷰 준비: 컬럼비아나 다트머스 같은 일부 대학은 EA/ED 지원자

에게 인터뷰를 요구한다. 일반적인 질문(예: "자신을 소개해 보세요", "왜 이 대학인가?")을 연습한다. 줌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인터뷰 연습을 준비하며 자신감을 키우도록 한다.

(6) 학업 성취도 관리: 12학년 1학기 성적이 조기 전형에 반영되므로, 마지막까지 학업에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원하려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SAT/ACT 점수도 마찬가지다. 10월이나 11월 시험을 마지막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그 전에 만족할 만한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7) 백업 플랜의 중요성: 조기 전형에 지원한다고 해서 정기 전형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조기 전형의

결과가 나오는 12월 중순까지 정기전형 지원도 병행해서 준비해야 한다. 특히 얼리 디지전이 불합격될 경우를 대비해 얼리 액션이나 선착순(Rolling Admission) 학교를 미리 선정해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12월에 결과를 받은 후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혼란 실수와 피하는 법

첫째, 얼리 디지전은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하고 진학해야 하므로 재정 지원과 대학 적합성을 신중히 검토한다. 둘째, 11월 1일 마감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온다. 9월 중 에세이와 서류를 마무리한다. 셋째, 일반적인 에세이는 인상을 주기 어렵다. 구체적인 경험과 대학과의 연결성을 강조한다.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십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경단녀 “기달 건 자격증뿐” ... 3종 세트 취득 붐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보육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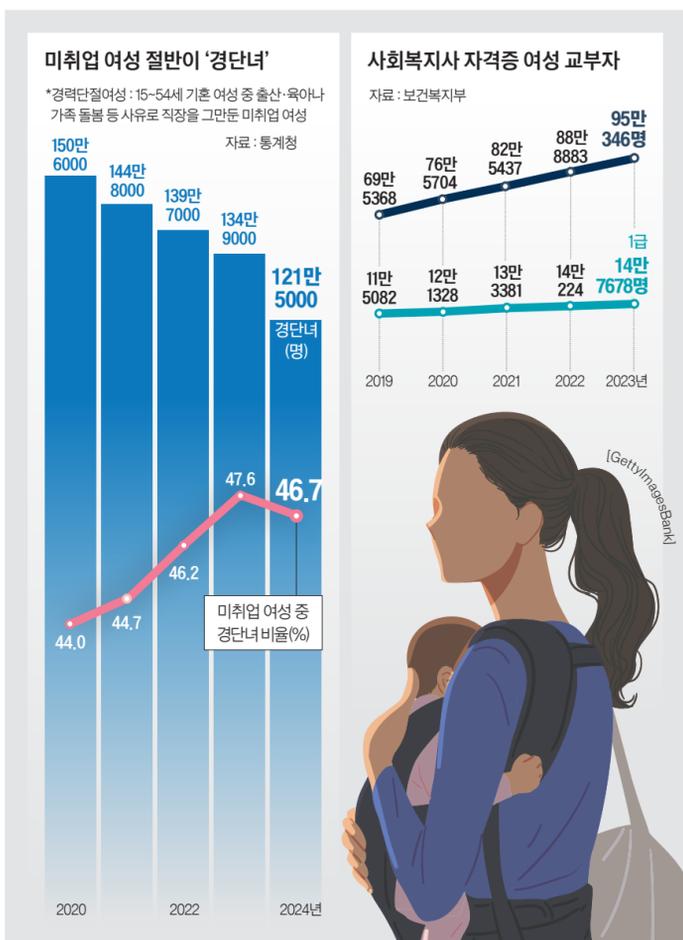
재취업 좁은문 뚫기 '자격증 열풍'

복지사 2급 취득, 여성이 남성 3배
요양보호사는 '보험용'으로 따뭉
자격증 있어도 취업시장서 후순위
근무 환경 열악, 중도 이탈도 많아

“8년 전 아이를 출산한 뒤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죠. 이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돼 다시 취업하려고 했는데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더라고요.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죠. 그러던 중 자격증을 따면 재취업이 한결 쉬워질 거라는 동료 학부모의 조언에 저도 도전하게 됐습니다.”

윤소희(46)씨처럼 지난해 미취업 여성의 절반가량은 경력단절여성이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54세 기혼 여성 중 결혼과 임신·출산·육아,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단녀'는 12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취업 여성의 46.7%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청년이 아닌 중년, 더욱이 미혼이 아닌 기혼 여성에게 재취업은 결코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들이 최근 '재취업의 좁은문'을 뚫기 위해 자격증 취득에 눈을 돌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로 경단녀들 사이에서는 사회복지사 2급과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재취업 3종 세트'로 불리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에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데다 육아 경험도 크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라는 점에서다. 가장 인기를 끄는 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노인·아동·장애인 등 돌봄



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유망 직종 1순위로 꼽힌다. 지난해에만 경단녀를 포함해 95만여 명의 여성이 취득해 남성보다 3배가량 많았다.

일선 학원 관계자는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1급과 달리 2급은 학원 이수 과실 과정만 충족하면 누구나 딸

수 있다”며 “특히 대졸자는 빠르면 6개월 안에도 취득이 가능해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경단녀들 사이에선 “운전 면허증보다 따기 쉽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윤씨도 지난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 그는 “학원에 등록하면 온라인 강의부터 리포트, 중간·기말

고사까지 알아서 일정을 짜줘서 쉽게 도전할 수 있었다”며 “같은 반 학부모 두 명도 나처럼 자격증을 딴 뒤 이미 취업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7살 자녀를 둔 박지민(41)씨는 지난 3월부터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관련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박씨는 결혼 전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다 출산과 동시에 경단녀가 됐다. 박씨는 “업무가 늦게 끝나는 학원 강사로 되돌아가면 육아와 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회복지사가 전망이 밝다고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뒤 내게 맞는 일자리를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 등의 수요가 많은 요양보호사도 ‘당장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꼽힌다. 특히 30~40대 경단녀들 사이에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자녀가 성장한 뒤 일자리 확보를 위한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취득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선주(38)씨는 “요양보호사는 주 3~4일만 근무해도 되고 시간 선택도 자유롭다는 게 장점”이라며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당장 취업할 생각은 없지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따놓으면 나중에 아이가 성장한 뒤 평생직장으로 삼을 수 있겠다 싶었다”고 전했다.

문규식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장은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 여성들이 커리어를 재개하기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 자격증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복지사는 물론 보육교사나 방과후교사도 인기가 높다”고 설

명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이 곧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현실론’도 만만찮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3년차 보육교사로 일하는 윤정원(46)씨는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던 경력만으론 도저히 재취업이 되지 않아 자격증을 따긴 했지만, 여전히 경단녀는 취업 시장에서 후순위”라며 “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도 더 젊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게 현실”이라고 아쉬워했다. 최혜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임연구원은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는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탓에 중도이탈률 또한 높다”며 “누군가를 돌보는 업무다 보니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잖다”고 말했다.

워킹맘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기혼 여성의 종사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7.5%)과 교육서비스업(15.1%), 도·소매업(12.9%) 순이었다. 경단녀들이 자격증 취득 후 마련한 일자리가 곧 대다수 워킹맘의 일자리로 연결되고 있는 셈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혼 여성의 재취업이 과거에 비해 늘었지만 임금이 낮은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흐름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는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고 고령화시대를 맞아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재취업 기혼 여성들에게도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허정연 기자**

LGBTQ 수업 ‘자녀 제외’ 허용에 학교 혼란

‘종교적 신념’ 검증 기준 학부모 요구 처리 고민

성 소수자(LGBTQ) 관련 수업에서 자녀를 제외할 수 있는 권리 ‘옵트아웃(opt-out)’이 허용되면서 가주 지역 교육구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LA타임스는 교육구 측이 학부모들의 옵트아웃 요청을 처리하게 되면서 혼란을 빚고 각종 법적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고 4일 보도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부모가 성 소수자 및 종교적 신념과 상충하는 과목 관련 수업에서 자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구의 기존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일례로 학부모들은 성 소수자 관련 수업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수업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교육구는 이러한 요청이 접수될 경우 ‘신념’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지, 또 수업에서 제외된 학생들을 위한 대체 교육을 어떻게 제공할지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학교위원회 협회

(CSBA) 트로이 플린트 대변인은 “이 문제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면서도 어느 한쪽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LA 통합교육구(LAUSD)의 경우 현재 학부모들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른 권리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학부모가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성 소수자 주제가 포함된 수업에서 자녀를 제외할 수 있으며, 교사가 성교육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체 과제를 제공하고 학생의 성적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송승서 기자

조지아 첫 의료 중심 차터 스쿨 ‘AIM’ 문연다

조지아주에서 의학 분야에 특화된 공립 차터 스쿨이 문을 연다.

조지아 차터 스쿨 위원회(SCSC)는 2일 의료 혁신 학교를 의미하는 ‘아카데미 포 이노베이션 인 메디신’(Academy for Innovation in Medicine-AIM) 설립을 인가했다. 이 학교는 그레이디 병원, 레디관ED 애틀랜타, 블룸버그 자선재단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AIM은 조지아 최초의 의료 중심 STEM(과학·기술·공학·수학·의학) 공립 학교로 내년 가을 학기에 문을 연다. 조지아의 의료 인력 양성과 전문화된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첫 해에는 6학년과 9학년 학생 260명으로 시작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6~12학년 최대 9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학교는 공립이지만 특정 교육구 소속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애틀랜타, 디캡, 풀턴, 캄, 클레이턴 등지의 학생이 모두 모집 대상이다.

AIM은 그레이디 병원과 협력해 의학 중심 과목과 이중등록(dual-enrollment) 학점 취득, 현장 기반 실습 등을 결합한 교육과정을 시행한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의료 업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준학사 학위 등을 취득할 수 있다. **김지민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페어팩스 타운홈

UNDER CONTRACT

\$647,000

방3/화2.2/차고1, End Unit
매우 관리 잘된 집, 편리한 로케이션

클리프턴 싱글홈

\$1.5M

방5/화4.5/차고3, 1.05에이커
새지붕, New HVAC, New Thompson C 창문
Dream Home for You

페어팩스콘도

PENDING

\$235,000

방1/화1, 웃스하이 근처
넓은 공간, 수리한 집

스프링필드 타운홈

PENDING

\$510,000

방2/화2.55
업그레йд 많이 한, 관리를 잘한 집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극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대입 들여다보기

빈센트 김 카운슬러 어드미션 마스터즈

UC·CSU 이어 USC도 재정 위기 가주 대학교육 시스템에 경고등

남가주를 대표하는 명문 사립대인 USC가 2025 회계연도에 2억 달러가 넘는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보고된 1억 5800만 달러 적자보다 더 큰 폭으로 캘리포니아주 내 대학들이 직면한 심각한 재정난 상황에 USC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

한인인 김병수 USC 임시총장은 지난달 15일 학교 커뮤니티에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는 “연방정부의 연구, 병원, 학자금 지원 축소와 국제학생 등록 감소 가능성 등으로 재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임시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USC는 향후 약 3억 달러 규모의 연구 자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USC 보건 시스템의 수익 감소, 예산 계획의 구조적 한계 등이 더해지며 적자가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USC는 이미 비필수 지출 중단, 선택

적 지출 및 교직원 출장 통제 등의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임시총장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구조적 적자를 해결할 수 없다”며 보다 과감한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미사용 부동산 매각, 중복 기능 통합, 고임금 구성원의 보수 조정 등 추가적인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며 “학교 운영 모델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직원 감원까지 포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USC가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 기금 인출, 추가 채권 발행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뜻을 밝혔다. 김 임시총장은 “이런 방안은 단지 미래 세대의 트로이 전사(학생)들에게 부담을 전

가하는 것일 뿐”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USC의 상황은 캘리포니아주 전체 고등교육 기관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 위기의 단면이다. UC 시스템은 현재 연간 535억 달러 예산 중 5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 중이며, 지난 3월에는 2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정부의 120억 달러 규모 재정적자 여파로 UC 지원 예산은 추가로 줄어든 상태다.

UC는 교수 채용시 다양성 진술서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연구 자금 삭감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컬럼비아대는 반유대주의 문제

대응 미흡을 이유로 무려 4억 달러 규모의 연구 자금을 삭감당했다.

캘스테이트대학(CSU) 시스템도 4억~8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약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주정부 지원금 삭감과 2억5200만 달러의 지원금 지연 등이 그 원인이다. 이에 CSU는 일부 학위 프로그램 폐지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검토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USC는 사립대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USC는 커뮤니티로부터 비용 절감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관련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웹사이트도 개설했다. 투명한 소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

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대 초 팬데믹 시기에도 여러 대학이 극심한 재정난을 극복해낸 전례가 있다. 페퍼다인대 등 사립대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빠르게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 바 있다. USC도 적시에 예산 긴축과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UC, CSU 시스템이 겪는 더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임시총장은 “지금은 우리가 바라던 소식은 아니지만, 구성원들과 현실을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이해와 공동체에 대한 깊은 존중을 얻고자 한다”며 “어려운 결정을 통해 USC는 반드시 더 강한 모습으로 회복해 앞으로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기관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USC의 대응이 다른 대학들에 어떤 시사점을 줄지 지켜볼 일이다.

에듀 포스팅

교장 세라 박 글로벌리더십 중·고등학교

청소년 독해력·집중력 저하 심각 스마트폰·SNS 사용 제한 바람직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화된 시점은 2012년 전후라고 한다. 그 이후 성장기를 보낸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집중력 저하와 정신 건강의 악화다.

사회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는 그의 저서 ‘불안한 세대(Generation Anxious)’에서 이 문제를 정신 질환의 ‘전염병(epidemic)’으로 규정한다. 특히 10대 초반, 즉 10세~14세 여학생들의 자살률이 2012년 이후 두 배 이상 급증했다는 충격적인 통계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적 취향이나 세대 차이로만 치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스마트폰과 SNS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청소년기의 뇌는 아직 구조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외부 자극에 의해 신경 회로가 쉽게 재편성된다. 이 시기에 스마트폰과 SNS의 끊임 없는 알림과 짧은 영상, 그리고 비교와 경쟁의 구조 속에 노출되면, 뇌는 깊은 사고보다는 즉각적 자극과 피드백에만 반응하도록 길러진다. 그 결과 아이들은 한 문단의 글을 읽고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한 가지 과제에 몰입하

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

▶**현장에서 목격하는 독해력의 붕괴**
학생들을 가르치며 가장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는 독해력의 저하이다. 영어 수업에서 한 단락을 읽고 핵심을 요약하라고 하면, 상당수 학생들이 몇 분도 집중하지 못하고 시선을 잃어버린다. 수학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끝까지 읽기 전에 포기하거나, 중요한 조건을 놓치고 계산에만 매달린다. 이는 단순히 공부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 읽고 사고하는 뇌의 회로가 약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 교육 평가 기관인 NAEP(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의 2023년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중 본 수준의 독해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비율이 29%에 달한다. 이는 팬데믹의 영향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 근본적 원인을

스마트폰과 SNS 환경에서 찾는다.

▶**청소년 정신 건강의 위기**
집중력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것은 불안·우울 증상의 폭발적 증가다.

CDC(질병통제예방센터)의 2021년 보고에 따르면, 미국 고등학생의 42%가 지속적인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답했다.

특히 여학생의 비율은 절반에 가깝다. 교실에서도 이런 현상은 자주 목격된다. 시험 전날 밤새 SNS를 하느라 잠을 못 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 ‘좋아요’ 개수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는 학생, 친구의 화려한 게시물을 보고 극심한 열등감에 빠지는 학생이 많다. 실제로 상담실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자기 비하, “죽고 싶다”는 극단적 표현을 하는 아이들을 심심찮게 만난다. 스마트폰

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

언어 습득이 특정 시기에만 가능하듯, 집중력과 자기 조절력 역시 청소년기라는 ‘결정적 시기’에 형성된다. 만약 이 시기에 집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성인이 되어도 집중 근육을 키우기 어렵다.

이 현상은 단순히 성적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집중력은 직장 생활, 대인 관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이다. 만약 청소년기에 스마트폰에 뇌가 길들여져 집중의 힘을 잃어버린다면, 이들은 평생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소비하며 끌려 다니는 인지적 ‘프롤레타리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부 아이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 받고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서

고력을 키우면서, 사회의 ‘인지 엘리트’로 자라난다. 결국 스마트폰 사용 여부가 계층 격차를 확대하는 새로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교장으로서 지난 30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그러나 요즘처럼 청소년의 독해력 저하와 정신적 불안을 뼈저리게 느낀 적은 없었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대신, SNS 속 비교와 조급함에 사로잡혀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다.

스마트폰과 SNS는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 성장기의 아이들이 깊이 사고하고, 집중하며,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래 사회는 소수의 인지 엘리트와 다수의 인지 프롤레타리아로 양극화될 것이다.

어른들의 책무는 분명하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갇힌 불안한 세대가 아니라, 책을 읽고 생각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세대가 되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때..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Town

매년테일 **703-354-1515**
2층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9월 가을맞이 Special SALE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250 1+1**
홍삼 로얄 앰플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160 1+1**
홍삼 로얄 본액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리튬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供辰丹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귀하다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천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광동 일품기력보환

\$149.00

이경제 황제신용단

완벽 기술, 신약 대량 생산, 신약 대량 생산의 대명사

신약 대량 생산

대박 SALE \$480 \$250.00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고고집, 광동의 기술과 철학이 만나다

5개짜리 FREE 증정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FromBIO **위건강엔 마스크**

meditree **레벤플러스**

코팅식이섬유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에스터 펠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풀광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폴리스 항병 공짜

당케어골드

식후 당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기능성 인장발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징크크린 정

가장성 뇌기능 장애 및 말초 혈액순환장애 치료제

말초 혈액순환/우울감, 기억력감퇴/집중력장애, 두통/어지러움 귀울림

농협농심 **한삼인** 10% SALE

농협 **한삼인 홍삼**

100% 홍삼즙 60포/30포

C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향상자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3+1 스페셜 그린 프로폴리스**

순도 100% 천연 황생제

허니웨이 고품질 프로폴리스

1oz \$45, 4oz \$125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프로폴리스 알콜프리, 프로폴리스 캡슐 1,500mg

세종 송보강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강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만성기침과 가래,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염, 기관지 노화로 인한 가래와 기침, 아침에 가래가 심하다,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숨쉬기 힘들다.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인산 김일호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명인 용융 자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홍환씨환

장수 넘버원 홍환씨환,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호당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 ✓ 혈당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 ✓ 식후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
- ✓ 혈당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
- ✓ 생활습관 및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 ✓ 식후에 활동량,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
- ✓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얻고자 하시는 분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름하지 않는 맛 좋은 천연 식초

요요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클루타치온 콜라겐

간 회복과 피부 미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1알에 클루타치온 387mg 함유

먹는 발모제 비오틴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맥주효모로 백백하게~

엘라스티프로 찰랑하게~

Umexon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액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스볼 EX / 옥마놀한 제도어리 / 재첩액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뷰티 콜라겐

천연 자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자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이젠 월드컵 전력질주... 더 강해진 '손흥민'

한국, 미국 평가전 2-0 완승

손흥민 1골 1도움 승리 주역
9일 오후 6시 멕시코와 일전

‘손톱(top·최전방 공격수)’이든, ‘캡틴 손’이든, 손흥민(33·LAFC)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 그 결과는 2026 북중미월드컵을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의 시원한 원정 승리였다. 손흥민은 6일 뉴저지주 해리스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경기장에서 열린 미국과의 평가전(A매치)에서 1골·1도움으로 한국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한국 23위, 미국 15위다.

최근 축구 대표팀에서는 ‘주장 교체’와 관련한 뒷말이 나왔다. 7년 차 주장 손흥민이 지난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메이저리그사커(MLS)로 옮기자 홍명보(56) 감독이 주장 교체를 시사했다. 전날(5일)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던 손흥민은 미국전에 주장 완장을 차고 출전했다. 그리고 자신이 주장인 이유를 경기를 통해 증명했다.

손흥민은 모든 이슈를 ‘정면 돌파’하려는 듯했다. 최전방부터 상대를 압박했고, 쉴 새 없이 공간을 만들어 밀고 올라갔다. 전반 18분 이재성(마인츠)이 후방에서 길게 전진 킥패스를 연결했다.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손흥민은 사각처럼 보이는 위치인데도 정확한 원발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A매치 52호골(135경기). 차범근의 최다골(58골)에 6골 차로 다가섰다. 전반 43분 도움도 올렸다. 이재성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손흥민이 미국 골키퍼에 걸려 넘어지며 내준 패스를 이동경(김천)이 발뒤꿈치로 마무리했다.



미국전에서 전성기 못지 않은 기량을 뽐낸 손흥민. 첫골을 터트린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KFA인스타그램 캡처]

손흥민은 “(이)재성 선수와 오랜 호흡으로 만들어낸 골”이라며 공을 동료에게 돌렸다. 또 “여기가 한국인지 뉴욕인지 모를 정도였다”며 2만5000석 규모의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응원해 준 교민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월드컵을 앞두고 3-4-2-1포메이션, 즉 ‘스리(3)백’을 가동한 홍 감독의 실험은 아직 가다듬을 점은 있지만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이 포메이션은 지난 6월부터 가다듬었는데, 강팀이 즐비한 월드컵에서 수비를 더 두껍게 하려는 전략이다. 3명의 중앙수비수 김주성(히

로시마),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한범(미트윌란) 앞에는 미드필더 백승호(버밍엄)와 김진규(전북)가 섰다. 왼쪽 윙어 대신 원톱으로 나선 손흥민에 대해 홍 감독은 “득점과 압박까지 팀을 잘 이끌어줬다”고 호평했다.

한준희 해설위원은 “대표팀 실정에 중앙 미드필더 숫자를 하나 줄이고, 센터백을 하나 더 넣는 게 안정적인 수 있다. 김민재가 센터백이지만 전진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황인범(페예노르트)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중원에서 볼 소유가 잘 안 되는 약점

을 노출했다. 한 위원은 “미국은 웨스턴 맥케니(유벤투스) 등 유럽파가 대거 빠져나갔다. 또 한국 선수들이 위험지역에서 패스 실수하거나 상대를 느슨하게 놔두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지역 방송 맨인블레이저스는 “포체티노는 쏘니(손흥민)의 최다치를 끌어내는 법을 알고 있다”고 패장을 비판했다. 포체티노 감독은 미국 사령탑에 오른 뒤 A매치 17경기에서 7패를 기록했다. 경기 후 테네시주 내슈빌로 이동한 대표팀은 9일 오후 6시(서부시간) 멕시코(13위)와 평가전을 치른다.



이정후가 6일 세인트루이스전 3회 좌전 안타를 치고 있다. [로이터]

‘가을의 기적’ 이끈다 이정후, 3경기 연속 멀티히트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27)가 3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이정후의 활약 속에 샌프란시스코도 사실상 접었던 가을야구의 희망을 되살렸다.

이정후는 6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MLB 원정 경기에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전날(5일)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시즌 11번째 3루타를 포함한 5타수 4안타 1타점 2득점 맹타를 휘둘렀던 그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2일 콜로라도 로키스전 이후 3경기 연속이자 시즌 30번째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다.

1회 첫 타석에서 야수 실책으로 출루한 이정후는 3회 2사 주자 없는 가운데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때려냈다. 상대 오른손 선발 안드레 팔란테의 시속 80마일 너클 커브를 받아쳐 유격수 옆을 통과하는 좌전안타를 기록했다.

이정후는 8회 마지막 타석에서 멀티 히트를 작성했다. 상대 오른손 볼펜 카일 레이히의 조구 시속 97마일 슬라이더를 공략해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를 추가했다.

지난 6월 월간 타율 0.143로 최악의 부진을 겪은 이정후는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송지훈 기자

박찬호와 인연, 데이비 존슨 별세

LA다저스 감독 역임, 향년 82세
선수·감독으로 월드시리즈 우승

메이저리그(MLB)에서 선수, 감독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데이비 존슨(사진) 전 감독이 영면했다. 존슨 전 감독은 1999년과 2000년 당시 LA 다저스 감독으로 ‘한국 최초의 바리케’ 박

찬호와 함께 뛰어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하다.

MLB닷컴은 6일 존슨 전 감독의 부고를 전했다. 존슨 전 감독은 지난 5일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82세다.

1965년 볼티모어 오리올스 유니폼을 입고 바리케에 데뷔한 내야수 존슨 전 감독은 1968~1970년, 3시즌 연속 아

메리칸리그 올스타에 뽑혔고, 1973년에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소속으로 내셔널리그 올스타에 선정됐다. 1969~1971년에는 3회 연속 골드글



러브를 수상했다.

1966년과 1970년에는 볼티모어에서 월드시리즈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존슨 전 감독은 1978년까지 바리케 무대를 누볐다. 1986년에는 메츠를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다. 1997년 볼티모어에서 아메리칸리그 감독상, 2012년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내셔널리그 감독상을 받았다.

존슨 전 감독은 메이저리그 감독으로 1372승(1071패)을 올렸다.

사람이 머무는 곳이 집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 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될 그 집, 제가 함께 찾아드립니다.
집은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니라, 웃음이 모이고 마음이 쉬는 곳입니다.
당신의 다음 미소가 피어날 집, 지금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 미국 진출시,
미국주정부에서 제공하는
Investment incentive process, IRA 법안 관련과
New market tax credit 도와 드립니다.
미국 시장 진출전 지역 정보까지 전체 상담해야 합니다
· 한국 기업 전문 ·

기업 컨설팅
미국 지역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디씨
용도부터 시설 설비, 기업 컨설팅
모두 도와드립니다

회사 본사나 사립학교 건물
\$750,000

레스턴 중심부의 3.7에이커 부지 위 3층 규모 사무용 빌딩, 회사 본사나 사립학교로 적합합니다.

- 넓은 주차장(138대 가능)
- 다양한 편의시설(캐테리야, 체육관, 다수의 주방, 야외 휴식 공간)
- Reston Town Center 및 Dulles 공항과 가까운 뛰어난 입지
- 임대보다 소유 비용이 35% 이상 저렴하여 투자 가치도 높음

거래 상태: 매물 (Commercial Sale, 상업용 매매)
총 면적: 약 38,510 SF 평당 가격: \$194.75 카운티: RESTON, VA
법적 구역: Reston 학교 구역: Fairfax County Public Schools
입자: 비즈니스 피크 내 위치, Dulles Toll Road 및 Reston Town Center 10분 이내, Dulles 국제공항 근접, 메트로 근접

대지 면적: 약 3.7에이커 (161,172 sqft) 층수: 지상 3층
건물 구조: 자재: 벽돌, 콘크리트, 프래임, 유리, 조적 등 복합 재료
엘리베이터: 1대 차량 주차: 총 138대 (주차 비율 3.7/1,000 SF)
특장: 나무 뒤쪽, 코너, 막다른 길, 조경 원료, 평탄한 지형
용도 지역(Zoning): I-3 (산업/사무용) 임대 잠재력: 복수 테넌트 가능

워싱턴 D.C. 물류창고 매매
\$3,000,000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에비뉴 인근

14,600대/일 차량 통행, 뛰어난 가시성과 접근성!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총 건물 7,182sqft / 토지 0.33에이커, NNN투자물건
연 임대 수익 약 \$180,000, 연 3% 임대료 인상
9년 이상 계약 잔여(2034년 만료)
Cap rate: 8% 안정적 장기 임대수익 보장

Chantilly 태권도/체육관 자리 렌트
\$5,500/월

콘길에서 가까운 장소
2,680 SF

<p>이름 / 영문 이름 송경호 (K Song)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 부동산 컨설턴트 거주/활동 지역 버지니아 주, 워싱턴 DC, 메릴랜드 메트로 지역 언어 한국어, 영어 브로커/지 미국 Realty One Group Capital 미전국 8위 기업 전문 분야 • 상업용 부동산 사무실, 리테일, 창고/공장 임대·매매 • 주거용 부동산 터옌하우스, 단독주택, 콘도 매매·임대 • 국제 투자자 지원 한국 기업/개인 미국 진출 부동산 컨설팅 • MBA (Wharton School) • 사업 확장 관련 부동산 지원</p>	<p>상업용 부동산 경험 • 오피스/레스토랑 운영 공간 확보, 유틸리티 창고 임대 및 계약 진행 주거용 부동산 경험 • 구매자·판매자·투자자 대상 전략 제공 국제투자 경험 • 한국 스타트업 및 IT, 바이오 기업 미국 진출 지원 • SBA, NNN, TI 등 상업용 부동산 금융·계약 컨설팅</p>	<p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연제, 어디서든 만나서 리스/임대/매매 가능합니다</p>
<p>포럼/세미나 참여 • "Innovation Highways: Strategies for Successful Korea-US Entrepreneurship" 패널 활동 포인트 • American Korean Business Friendship Forum (AKBFF) - 이사 • 한국 기업/개인 대상 미국 사업 확장 및 부동산 전략 전문가 •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거래 경험 풍부 • 워싱턴 DC, 메트로 네트워크 활용 가능</p>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적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리얼티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적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03.928.5990 송경호

k@dwelld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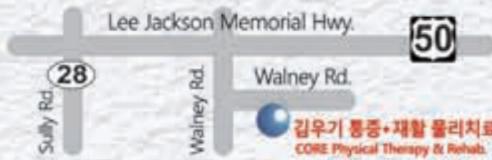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9월 구인광고

척추신경병원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내놓습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

TEL: 571-212-3082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독자가 행복 해진다!!

Kmediarods.com

① 워싱턴 중앙일보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 & 설치 전문 회사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anical.office@gmail.com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 (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금매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9월 9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경
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
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코블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파리바게트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 케익 데코분들 모집합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심 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메일: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바느질 유경험자 구함
파타임, 풀타임, 엘리트시티
410-926-3200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아웃 같이 일 하실분 구합니다. 남녀 모두 환영
443-991-9331

엘리트시티 해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속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엘리트시티 한국식당에서 주방장, 부주방장, 캐쉬어를 모집합니다.
443-691-4130 (문자요망)

엘리트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를 구합니다. 엘리트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세탁소 풀/파타임, 베킹만 하실분, 영어 가능 하신분
410-926-3200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트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 면허/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집합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 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싱글/타운 방 렌트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룸 방 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메릴랜드 그린벨트 지역, 조용하고 교통편리 타운하우스 방 하나 렌트, 즉시 입주 가능, 방세 저렴
301-379-9660

495와 95번이 만나는 첫번째 EXIT,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싱글룸 이중방 렌트, 즉시 입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교통 편리한 메릴랜드 실버스프링 싱글룸 1층 전체 렌트, 방2, 화장실1, 주방, 세탁기, 건조기,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미용실 가능)
301-646-3127

메릴랜드 한오버 이중방 & 베이스먼트 방 렌트 합니다. 여자분 환영
410-917-1262

엘리트시티 롯데에서 10분 거리 타운하우스 2층방 렌트, 유모, 가구일체, 교통편리, 직장인 남자분 환영
443-631-7866

버튼스빌 198번과 29번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싱글룸 이중방 렌트, 욕실, 냉장고 별도, 인터넷, 가구 완비, 주차장,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240-413-2738

사업체 매매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0,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 곳으로 리모델링비 절감 관심 있으신분 연락 주세요.
240-988-6868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간호사 모집 RN, LPN (풀타임, 파트타임) 재택근무, 처우는 별도 협의
▶703-507-2492 (Mr. Bae)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 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매년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 보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
703-507-2020

매년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를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i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집합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매년데일워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걸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 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나 경력 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매년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매년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매년데일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매년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찬들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찬들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파리바게트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 케익 데코분들 모집합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프레데릭스버그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피쉐프 구합니다.
703-258-4356

매년데일 일본 라면 가게에서 파타임 홀직원 구함. 유/무 경험자 환영
703-338-3037

매년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학생 환영
571-352-4938 (문자) 또는
Chimc.va@gmail.com

엘리트시티 해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속소 제공 가능)
▶443-420-3096

매년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주방 헬퍼해 주실분, 파타임 카운터 케슈어 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야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 - 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플라자 스텔라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최추신경전문이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한달유료계재,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중앙일보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일하실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카운터 캐시어, 유틸리티 워커
(영어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 우대, 무경험자 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강 하실 분/
파/풀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 스토어에서
파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에서 수선하실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 경험자 구함.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라곳시타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청소/기타구인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홈케어(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우대 이중언어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서가능합니다.
571-422-7189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홈 렌트

애쉬번 타운하우스 렌트 \$3,300
전체 마루, 차고2, 덱, 267/607
Briar Woods 하이स्क롤 학교
▶571-239-6054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하우스 렌트
2100 sqft, 방4, 화3.5, 워크아웃 베이스먼
트 \$3,200
470-485-1875

애난데일 엔드 유닛 타운홈스타일 콘도 렌트
방3, 화2, 나무마루, 세탁기, 건조기, 1,2층
구조, 넓은 리빙룸 \$2,500 (물값 포함)
▶703-477-3114

맥클린에 위치한 싱글하우스 전체 렌트하실
세입자를 구합니다.
방4, 화장실 3, 차고 2, 즉시 입주 가능
571-277-7758

애난데일 중심가 1 에이커 싱글하우스 반지
하 전체 렌트
방3, 화2, 키친, 리빙룸, 세탁기, 입구 별도,
주차터널, 최근 전부 새로 수리하였으며, 전
화하면 사진 보여드립니다
703-395-4380

브리스토(게인스빌 옆) 타운 하우스 렌트,
엔드 유닛, 방3, 화3.5, 차고 2, 업데이트
된 주방, 세탁기, 건조기, 새 페인트, 넓은 덱,
2013년 지은 새 단지 새 집, \$3,2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게인스빌 업데이트된 예쁜 벽돌 타운홈
방3, 화4, 차고 2, 탁트인 키친, 새 나무마루,
새 페인트, 확장형 3층 구조, 가까운 곳에 큰
쇼핑센터, 레스토랑, 그로서리 있음.

\$3,2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센터빌 파월 초, 2 car 벽돌 타운하우스 렌트
\$3,400 방3, 화2.5, 덱, Faircrest, 루트
29/50/286/66/28, 9월 1일 입주
▶571-239-6054

페어팩스 Costco 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교,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다수, 콜린 파월 초,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 화3.5, 2car, 전부 마루, 주차다수
South County 하이, RT95/395/286/123
▶571-239-6054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 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움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첸틀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
3.5, 차고 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렌트, Safe Way 건너편, 업데
이트한 밝고 예쁜 콘도, 방2, 화1, 새 카펫, 새
페인트, 물값과 가스비 포함 \$2,0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업데이트한 밝은 콘도, 엔드 유닛,
방3, 화2, 세탁기, 건조기, \$2,5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존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
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노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
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1. 옥톤 싱글 \$3,600, 방5, 화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 렌트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방 렌트 또는 하숙 하실분 구합니다

GMU, 노바에서 5분거리, 방/화장실/부엌/
세탁기 모두 별도, 편리한 파킹
703-388-8518

페어팩스 왓슨 하이स्क롤 건너편 타운 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1, 키친, 욕실, 워크아웃
571-643-8008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싱글홈 1층 렌트
방1, 화1, 주방, 여자분 환영 \$1,200
즉시 입주 가능
571-318-1119

애난데일 순복음 교회 앞 주택 지하 렌트
방2, 화장실, 큰 거실, 부엌, 방 하나 쓰실분
또는 전체 쓰실분
703-244-3453

애난데일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놓습니다.
출입문 별도, 취사 가능, 여자분 환영
571-213-9080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홈 이층 욕실 딸린 큰
방 하나 렌트합니다.
571-970-8048

센터빌 CVS 근처 타운하우스 마스터 베드
룸/개인욕실/워킹인 클로젯/여성분 환영
571-243-7027 (문자요망)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가구/인터넷/간단한 취사, 비흡연자,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 (웨스트스프링필드 하이स्क롤 근
처) 워크아웃 타운홈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가구일체/유포
703-887-8428

애난데일 싱글홈 아래층 495 조지메이슨
6분, 침대/가구/취사 가능, 여자분 환영
571-205-0903

애난데일 중심가 새로 수리한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방3, 화2, 키친, 리빙룸, 입구 별도,
주차 편리
703-395-4380

센터빌 극장 근처 타운홈 방 렌트
방, 화장실, 가구, 세탁기, 인터넷, 파킹, 조용
한 여자분/학생, 가능한 잠만 주무실분
571-239-6054

애난데일 H마트 뒤 콘도 방1, 화장실1 렌트
인터넷 유포 \$800
703-577-3421 (문자요망)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세놓습니다
유포 \$1,100
▶301-928-4125

애난데일 예촌 앞 타운홈 방 렌트, 화장실 딸
린 큰방, 직장인, 학생 환영, 취사 가능
703-622-2033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센터빌 벽돌 타운 하우스 \$589,000
방3, 화2.5, 차고 1 HMART 근처
29/28/66 Braddock
▶571-239-6054

1. 알렉산드리아 콘도 \$274,900
넓은 방2, 화1, 탁트인 넓은 뷰, 완전히 리모
델링한 콘도,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SS
Appliances
2. 레스톤 콘도 \$499,900
고급 콘도, 방2, 화2, 나무마루, 잘 리모델링
된 밝고 환한 콘도, 새 페인팅, 업그레이드한
부엌과 화장실, 어메니티가 좋음
3. 우드브릿지 타운홈 \$410,000
방3, 화3 1/2, 잘 관리된 밝고 환한 집, 펜스
가 있는 뒷마당, 3층 구조, 업그레이드된 지
붕과 창문, 히팅 & 에어컨 시스템
703-813-8949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마켓 럭서
리 싱글 \$1,699,000
10에이커 숲속, 6700 sqft, 방5, 화5.5, 3차
고, 야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야외 주방, 벽난로, 연못, 분소, 덱, 음향시스
템등) 골프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교
▶571-239-6054

1. 메릴랜드 베데스다 싱글홈 \$1,295,000
방4, 화2.5
2. Gwynn Oak 메릴랜드 싱글홈 \$419,000
방4, 화3
▶301-318-4242

1.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950,000
방4, 화장실 4+1, 차고1, 새 집, 편리한 교통,
모던하고 예쁜 집
2. 워싱턴 디씨 SE 타운 \$649,000
방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예쁜 집
▶410-417-7080

1. 메릴랜드 포트 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포트 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2.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새로 고쳤으며,
HOA가 없는 집
▶410-417-7080

1. 페어팩스 싱글홈 \$999,000
방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가
꾸어진 집, 벽돌, 마루 바닥
2. 페어팩스 싱글홈 \$1,050,0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싱글홈 전체 렌트

맥클린에 있는 싱글홈
전체 렌트할 세입자를 구합니다.



방 4개, 화장실 3개, 차고 2개

대사관, 주재원 분들도
환영합니다.



자이언트 제니 지: 571-277-7758
부동산 insunchi@yahoo.com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9월 9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1

방4, 화장실 3+1, 차고 2, 우순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비엔나 싱글홈 \$1,875,000
방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4. 페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4, 화장실 3+1, 차고 2, 앤드 유닛, 아주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703-899-8999

1. 던로링 메트로 앞 콘도 \$46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마루
2. 맥클린 콘도 \$409,000
방2, 화2, 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alleria역
▶571-239-6054

Alexandria 콘도 \$365,000
방2, 화2, Top Floor 엔드 유닛, 업데이트 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마루, SS Appliance, Granite Countertops, Deck, 세탁기, 건조기
▶703-813-8949

1. 센터빌 싱글홈 \$770,000
방3, 화3.5, 차고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 넓은 뒷뜰
2. 페어팩스 싱글홈 \$1,005,000
방5, 화3.5, 차고2, 최근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집, 넓고 고급스러운 집
▶703-899-8999

1. Falls Church 콘도 매매 \$224,900
800 sqft, 전부 리모델링, 방1, 화1, 유틸리티 콘도비 포함, Mosaic, Gallows Rd, 편리한 교통, RT 495/29/50
2.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3.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군,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4.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센터빌 중심에 위치한 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 앞, 1230sqft, 콘도비 \$348.77/m, Giant 66/28/29
▶571-239-6054

1. 페어팩스 새 빌더홈 우순 학군 싱글홈 \$1,900,000
2. 페어팩스 씨티 타운하우스 새 빌더홈 \$930,000
3. 캔들리 새 빌더홈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670,000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렌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음.
2. 매너서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원, 레스토랑, 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 곳으로 리모델링비 절감 효과, 관심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델라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상부 운영하면서 투자용, 안정된 수입
▶703-625-9909

헤어, 네일 & 스파 살롱 사업체 매매 (레스톤 / 헨든 지역)
-\$100,000
- 현지 경험을 두루 갖춘 잘 정비된 사업체로 수익 좋고 지속 성장 가능
- 월 임대료 & 수도세 없음 **
- 6개 헤어 부스 + 2 페디큐어 부스 + 2 네일 테이블 + 1 마사지룸 + 1 왁싱룸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신분)

척추 신경병원 매매
2001년부터 애난데일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

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내놓습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 신경학 박사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71-212-3082

미장원 리스
게인스빌 성업중인 미장원 렌트 \$3,300/m 1,300sf, 29/66, 세븐일레븐역
▶571-239-6054

미장원 매매
센터빌 중심 성업중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중고매매/기타

부동산 학교 (5주 속성반)
2025년 9월 16일 (화) 개강
한국식 쪽집게 수업, 온라인 수업 병행, 기본 컴퓨터 교육,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풀이
수업료 \$350 (교재비 \$100)
703-899-8999/410-417-7080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애난데일 H마트 근처 텃밭 공유 하실분
1평, 2평, 3평
517-318-1119

무빙 세일 (센터빌)
다이닝 테이블, 쇼케이스 그림, 유로피안 장식 품, 골동품, 청동으로 된 언어공주, 자수정수 집품, 강아지 케리어 등등
808-223-4825

1년된 Inokim OX Scooter
공원에서 서너번만 사용해서 상태 좋음, 필요하신분께 저렴하게 드립니다.
703-945-2991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핸디맨 중고 장비 포함
703-864-5346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수학 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zoom 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 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Email : inyeolchoi@hotmail.com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Out), 텍 메인터넨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움니화재사 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히팅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심 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Email: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타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버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옷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여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 번 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스 팀장,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폴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방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사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Email : 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사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역류장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웅 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 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H.P. 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테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전문
703-340-5858 (VA)
443-980-5858 (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워샘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텐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 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셨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Since 1988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셉텀프 교체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소름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통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what's the deal (with someone or something)?; 무슨 일이야?

(Jim is talking to David at work...)

(짐이 직장에서 데이빗과 이야기한다...)

Jim: So what's the deal?
 짐: 그래 무슨 일이야?
 David: What do you mean what's the deal?
 데이빗: 무슨 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죠?
 Jim: You were late again today.
 짐: 오늘 또 늦었잖아.
 David: Oh I overslept.
 데이빗: 아 늦잠 잤어요.
 Jim: You've been late every day for the last two

weeks.
 짐: 지난 2주일 동안 매일 늦었잖아.
 David: My second job keeps me up late.
 데이빗: 일을 하나 더 하다 보니 잠을 못 잤어요.
 Jim: What is your other job?
 짐: 다른 일 뭘 하는데?
 David: I'm a waiter in a restaurant downtown and I get home late every night.
 데이빗: 다운타운에 있는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

하는데 매일 밤 집에 늦게 가요.
 Jim: If you come to work late again I'm going to have to let you go.
 짐: 또 지각하면 해고할 수 밖에 없어.
 David: I understand. 데이빗: 알겠어요.

▶ (something) keeps one up late: (~때문에) 잠을 못 자다.
 "The baby crying kept me and my wife up late." (아기가 우는 바람에 아내가 잠을 못 잤어요.)
 ▶ let (someone) go: (누구를) 해고하다.
 "Because of the financial crisis the company had to let some people go." (금융위기 때문에 회사가 부득불 일부 직원을 해고했어요.)

기억할만한 표현

▶ to oversleep: 늦잠을 자다.
 "I'm going to set the clock so I don't oversleep." (늦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가로열쇠

(1)사회에 널리 이름이 알려진 사람. 무대 앞 귀빈석에는 각계각층의 ~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4) 등잔 밑이 어둡다. □하□□ (7)산에서 내려옴 (8)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높이 만든 대 (10)창살이 쇠로 된 창문. 감옥. ~ 신세가 되다 (11)큰 마루 (12)도장을 찍는 데 쓰는 붉은빛의 재료 (13)하늘의 한가운데. 해가 ~까지 솟았는데 아직 자빠져 자니? (14)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일 (16)남을 빈정거리 놀림 (18)고기를 삶아 낸 물 (19)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을 할 때, 공이나 셔틀콕 따위를 치는 채 (20)물을 길는 데 쓰는 질그릇 (22)오늘이나 내일 사이 (24)비행기의 앞부분 (25)식물에서 나온 씨 (26)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운명, 성격, 수명 따위를 판단하는 일 (27)삶과 죽음 (28)물을 모아 두기 위하여 하천이나 골짜기를 막아 만든 큰 못 (30)지붕의 안쪽, 방의 뒷부분. 쥐들이 ~에서 달음질을 하고 있다 (32)매우 짧은 동안의 시간. 시간은 덧없이 흐르기 쉬우니 ~이라도 아껴 써야 한다. □□광□ (33)시집간 딸은 남이나 다름없다는 말. □가□□

세로열쇠

(1)조선 시대, 왕세자를 높여 부르던 말 (2)이름난 산과 큰 내. 신라시대의 화랑도들은 ~의 자연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풍류를 즐겼다 (3)모르는 말을 찾아보는 책 (4)밤에 불을 밝혀 벉길을 알려 주는 시설 (5)어떤 일을 함에 있어 밤낮을 가리지 않음. ~로 휴전선 155마일 철통 방어에 여념이 없는 국군 장병들 (6)노래를 뛰어난게 잘 부르는 사람. 판소리 ~ (9)말의 새끼 (13)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드는 노동 (14)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한 돈 (15)예전에, 궁중에서 임금의 진지를 짓는 부역 (17)야구에서, 2루와 3루 사이를 지키는 내야수 (21)어머니의 여자 형제의 자녀 (23)총이나 활을 매우 잘 쏘는 사람 (24)착상이나 생각 따위가 쉽게 집착할 수 없을 정도로 기발하고 엉뚱함. ~의 발상 (27)태어난 날 (28)낮은 소리 (29)어떤 목적을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일 (31)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예술가의 창작 활동이 심혈을 기울여 물건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예술가를 두루 이르는 말. 고려청자에는 ~의 정성이 배어 있다

스도쿠

		8	1	6		5	9	
	4		9	3				
				5	4		3	1
8	1	7			5			
	5		6				8	
	3		4			7		
7			8			4	5	9
		6	5			2		8
			2		7			3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3	9	1	2	6	2	5	8	4
8	2	3	4	5	9	6	1	
6	5	7	9	1	8	3	2	2
5	1	2	6	8	4	2	3	9
2	8	3	1	7	9	4	5	6
9	4	6	5	2	3	2	1	8
1	3	8	4	5	7	6	9	2
2	2	9	8	3	6	1	4	5
4	6	5	2	9	1	8	7	3

고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input type="text"/> EXP. DATE: / month year CVS: <input type="text"/>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IBERTY BANKCARD

**사장님의 꿈:
최신형 기계 교체
+ 수수료 절약
+ 최고 서비스**

30주년 프로모션으로
리버티뱅크카드와
월드페이 가
사장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대표: 류 사라 박사
https://wikia.com/wiki/Dr._Sarah_Sun_Liew
30년 프로그래밍 경력,
경영학 박사
(전자상거래 & 금융),
영양학, 교육학, 설교학 박사
하버드 경영·교육·정치 대학원
Alumni MIT, Wharton,
Chicago Booth
경영대학원 수학
하버드, 아브라함(J.D.),
퍼시픽(J.S.D.) 법대원 수학
부사장: 아브라함 리
(경영학 학사, 석사)

▶ **최신형 기계 교체**
(WiFi · Wireless · Touch Screen 지원)

▶ **수수료 매달 \$50 ~ \$500 절약!**

▶ **세계 1위 회사 Worldpay**
+ 30년 경력 Liberty Bankcard 전화주세요!

www.worldpay.com **424-332-3779**
Info@meridianwish.com

대표: 사라 유 박사 / 부사장: 아브라함 이

WORLDPAY는 전세계 175 개국 2 M 고객서비스, 연간 550억권 거래
Liberty Bankcard (MPS) is a registered independent Sales Organization of Worldpay/ISO
and Ecommerce, LLC, a registered ISO of Fifth Third Bank, N.A., Cincinnati, OH, USA

L.A. 애틀랜타

매매 구인

여자웃 소/도매 컨설팅
머천다이즈와
비잉 가르쳐드립니다.
매상극대화
문의는 문자주세요.
(213)507-5258

일본식당 구인
*히바찌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
(걸어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이민생활의 나침판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Dealer No 90-491972, Permit 007669

9월~12월 한정판매

자연산삼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직접 캐오는 Wild Ginseng 입니다.

자연산삼의 효력
면역력 향상효과
당뇨 혈압
체력증강 등등.

• 5~20년 \$600
• 20~30년 \$1,000
• 30~50년 \$1,500
문의 (571)236-8591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양문물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뱀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르레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지긋한 통증과 중풍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히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배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22일~12월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S.WesternAve.#100LosAngeles,CA90020 | TEL:213-272-6031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